

‘직인 쓱 뺐’ 공문... 금감원 ‘이상한 가상자산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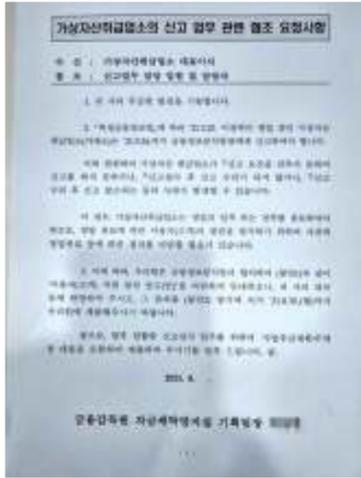
‘기관장 명의’도 없어...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해
금감원 “공문 아닌 협조요청, 가끔씩 이렇게 내보낸다” 해명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관련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비롯해 일일·주간 동향 보고를 받아 왔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코인 거래량, 이용자 규모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발송한 문서에는 공식적인 공문임을 입증하는 직인이나 기관장 명의가 생략되고 관련 내용만 적시된 채 업체에 전달됐다. 기관 직인이나 기관장 명의가 빠진 문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관련 내용에 마찰이 빚어질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지난 6월 시장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약 32개의 코인을 상장폐지(지원종료)하자, 금감원은 자료와 협조요청 등 수시로 관련 공문을 업체에 전달했다. 언론에 노출된 거래소의 특이사항 등 코인 상폐에 따른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전달 방

식은 대부분 유선을 통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 전달이 이뤄졌다. 특히 일부는 단순 업무협조 요청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컨대 금감원은 지난달 19일자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취급업소의 신고 업무 관련 협조사항’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원화마켓 종료 및 폐업 등을 앞두고 있는 거래소에 이용자 지원 절차 권고안을 안내하고, 내규에 반영하라는 지시였다. ‘같은달 30일까지 반영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금감원 소속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으나, 공식적인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이나 기관장 명의는 생략됐다.

한 고위공무원 출신 관계자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업무연락이라고 해 직인이 필요없지만,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는 전자결재를 통해 직인을 찍고 보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직인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기관장 명의로 발송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직인이나 기관장 명의가 삭제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지속적으로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발송한 ‘가상자산취급업소의 신고 업무 관련 협조사항’.

지적했고, 폐업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납작 앞드려야 한다고 앉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문 형태보다는 일반적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당부였기 때문에 이메일로 발송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끔씩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10면에 계속
박소은 기자 gogumee@

<SK이노 총괄사장>

김준 “배터리, 연내 상장 어렵다”

임시주총서 배터리·석유개발 분할 승인... 내달 1일 출범

SK이노베이션이 16일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개정 및 배터리사업과 석유개발사업(E&P)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80.2%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 의결로 신설 법인 ‘SK배터리 주식회사(가칭)’와 ‘SK이엔피주식회사(가칭)’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하게 됐다.

1호 안건인 △지배구조헌장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변경 △이익 배당을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일부 정관 개정 안건도 97.9% 찬성률로 통과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파이낸셜 스토리의 핵심인 ‘카본에서 그린(Carbon to Green)’ 혁신 전략의 추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8월 3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배터리와 석유개발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두 사업의 분할이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분할을 의결했다.

이번 주총 결정에 따라 배터리 사업은 전자자동차용 중대형 배터리, BaaS(Battery as a Service),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업 등을, 석유개발사업은 석유개발 생산·탐사 사업,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을 각각 수행한다.

김준<사진>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회사 분할을 시발점으로 각사에 특화된



독자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적·양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총괄사장은 배터리 사업의 하반기 IPO(기업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3년 내 IPO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좀 보겠다”면서 “투자수요라든지 재원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을지 유리한 방향으로 보면서 IPO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사업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한 주주의 질문은 일축했다. 김준 사장은 “SK그룹 내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다른 멤버사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간의 관계와 향후 합병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배터리 사업의 밸류체인이 그룹 안팎에 있던 에코 시스템이 한국 전체로 단단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주주 환원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간 경영실적과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신나는 율놀이 추석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추석을 맞아 한복을 차려입고 율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쉬세븐 ‘물량 떠넘기기’ 의혹 일부 조합원 ‘포털 등서 화장품 구매 강요’ 아쉬세븐 ‘투자자 달래기’에도 파문 확산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아쉬세븐이 조합원들에게 화장품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는 엄모 대표와 모 본부장 등 임원 10명이 입건돼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업 실체가 있다’며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아쉬세븐 복수의 조합원은 “아쉬세븐 화장품 구매(도매)와 위탁 판매 과정에서 소매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며 “회사가 조합원에게 물량을 떠넘겼다”고 전했다. 조합원 A 씨는 “위탁판매액 대비 1% 상

당의 화장품을 네이버 등을 통해 사야 했다”고 전했다. B씨는 “(회사가) 원금 대비 5%를 화장품 구매에 쓰도록 했다”고 했다. C씨는 “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한 달에 3만원, 1억 원 이상이면 5만 원 이상 사야 했다”고 말했다. 아쉬세븐은 지난해 매출액 130억 원을 기록했다. 지점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측 주장대로라면 적지않은 매출이 사실상 강매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세븐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화장품업체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조합원들 달래기에 나섰다. 아쉬세븐 투자자들

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창고를 방문했더니 화장품 실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아쉬세븐이 최대주주로 있는 센트럴인 사이트와 B사가 맺은 흡수합계약서도 공유했다.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을 받으면서 사업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투데이는 회사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자와 전화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12면에 계속 박기영 기자 pgy@ 이민희 수습기자 nancho0907@ 이민재 수습기자 2mj@

<경제부총리> 홍남기 “카드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금일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상세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9세 이상 전 국민(외국인 포함)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10월에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11월까지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카드캐시백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품목의 소비 실적은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다만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외 업종·품목에 쓴 돈은 캐시백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애초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사용처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거래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얼굴로 문 열고 지문으로 시동 '스마트 제네시스'

완성차 '페이스 커넥트' 기술 전기차 GV60에 적용 첫 상용화 고객 편의성·차량과의 교감 확대



제네시스 전기차 GV60에 적용되는 얼굴 인식 기술 '페이스커넥트'. 사진제공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 등록된 운전자에 맞춰 운행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개발했다. 출시를 앞둔 전용 전기차 제네시스 GV60(사진)에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는 최초다.

16일 제네시스는 '페이스 커넥트'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키 또는 디지털 키 없이도 차량 출입부터 운행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라며 "향후 키 없이 생체 정보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네시스는 사람과 차의 연결을 강화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페이스 커넥트는 지문 인증 시스템과 함께 운전자와 차량 간 교감을 돕는 대표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 편의성을 확대

할 페이스 커넥트는 운전자 얼굴을 인식하고 차 문을 열거나 잠근다. 동시에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운전석 및 운전대 위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사이드미러 △인포테인먼트 설정 등을 운전자에게 맞춰 조정해 준다. 얼굴은 '근적외선(NIR)' 카메라를 활용해 알아본다. 흐린 날씨나 야간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간과 동등한 인식 성능을 확보했다는 게 제네시스 측의 설명이다.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 사전 등록된 얼굴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한다.

차량 실내에 두고 문을 잠그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키를 차 안에 두고 얼굴 인식으로 문을 잠그면 별도로 차량 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달리기나 물놀이 같은 야외 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페이스 커넥트에는 최대 2명의 얼굴을 등록할 수 있다. 음성 안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얼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얼굴 정보는 차량 내에서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되므로 유출될 위험이 없으며, 운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

GV60에 함께 적용될 '지문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면 별도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키 없이도 생체정보만으로 완벽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얼굴 인식으로 차량에 탑승 후 지문 인식을 통해 시동을 걸 수 있다.

제네시스는 이와 함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Software Update)' 기술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한정되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의 범위를 차량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민간인 우주관광 주요 일정

2021년	7월 11일	버진갤러티, 최초로 우주관광 비행 성공
	7월 20일	블루오리진, 두 번째로 민간 우주여행 성공
	9월 15일	스페이스X, 3일간 저궤도 우주관광 시작
	10월 5일	러시아연방우주국, 영화배우 율리아 페레실드와 영화제작자 위해 ISS행
2022년	1월	일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 일본인 최초 민간인 ISS 우주관광
	1월	스페이스X, 우주관광 스타트업 엑시엄스페이스와 ISS 우주관광 상품 추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대기 중인 미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캡슐 '크루 드래건'에 타고 있는 민간인 우주 관광객들. 오른쪽부터 아동병원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 기업가 재러드 아이잭먼, 애리조나 전문대학 과학 강사 시안 프록터, 록히드 마틴사의 데이터 기술자 크리스 셴브로스키. 케네디 우주센터 AFP/연합뉴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관광 새역사 썼다

민간인 4명 태운 '크루 드래건' 고도 585km 3일간 궤도 비행 본격적 우주관광 개발 신호탄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15일(현지시간) 민간인을 태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7월 버진갤러티와 블루오리진에 이어 세 번째 민간인 우주 관광이다. 시기는 늦었지만 민간 우주 관광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륙 직후 '찍고 돌아오는' 우주여행이 아닌 우주인처럼 3일간 우주에 머무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진짜'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CNN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8시 2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공군기지 내 케네디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 우주여행팀 '인스피레이션4'를 태운 유인우주선 '크루드래건'을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우주선은 이륙한 지 3시간 후 고도 585km에 도달했다.

이번 크루드래건의 우주 관광은 앞선 사례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꼬찌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갤러티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시도한 우주관광은 도달 지점을 놓고 보면 '맛보기'에 불과했다. 7월 가장 먼저 민간인 우주 관광 시대 포문을 연 버진갤러티는 '우주의 시작선'으로 불리는 '카르만 라인(고도 100km 이상)' 안쪽인 상공 86km를 찍고 내려왔다. 두 번째로 우주 관광에 나선 블루오리진도 108km까지 오르는 데 그쳤다. 이때 문에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하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

았다. 하지만 크루드래건은 국제우주정거장(ISS)보다 160km 더 높은 575km 저궤도에서 사흘간 지구를 돌고 내려온다. 본격적인 우주 관광이 시작됐다고 보는 이유다. 크루드래건은 음속 22배인 시속 2만7359km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한다.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허블우주망원경 설치·수리 프로젝트 때보다 더 높은 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인류의 가장 먼 우주여행"이라고 평가했다.

크루드래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전문 우주비행사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전의 국제우주정거장(ISS) 관광에는 우주인이 함께 동승했다. 민간인은 일종의 '결다리'였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 창업주 재러드 아이잭먼(38)은 스페이스X에 거액을 내고 크루드래건 좌석 4개를 통째로 샀다. 나머지 세 명은 그가 선발한 세인트루이스아동병원 병원의 전문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29), 애리조나 전문대학 과학 강사 시안 프록터(51), 록히드 마틴사의 데이터 기술자 크리스 셴브로스키(41)다.

우주선 안에서 이들은 우주선 조종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대신 지상의 비행팀과 시스템이 우주선을 원격으로 조종한다. 민간인들은 출발 전과 후의 신체 건강을 비교한 데이터를 스페이스X 측에 제공해 우주여행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광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올해 10월 러시아 연방우주국이 자국 배우 율리아 페레실드와 영화감독 2명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 영화를 촬영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크루드래건 캡슐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케이프커내버럴/연합뉴스

수익은 같지만, 세금은 덜내는 국민 절세 계좌 ISA

신한금융투자 ISA(이사)하세요!



신한금융투자로 ISA(이사)하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혜택(~12/31)

상담문의 **1588-0365**

최대 400만원 비과세 혜택 | **9.9% 분리과세(서민형)**

※연간 2천만원, 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까지(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가능/재납입 불가)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ISA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ISA 계좌 내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가입 시 계약 유형에 따라 신박보수, 일임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박보수(연) 예금: 0.1%, RP 0.1%, 펀드: 선취수수료 /5+ 펀드판매보수, E/DLS: 편입상품별, ETF: 0.5%이며, 일임형 보수(연)고위험 A/P: 0.6%, 중위험 A/P: 0.4%, 저위험: 0.2%입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ISA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당사 홈페이지 및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온라인 평생 혜택 수수료율은 국내주식(거래소, 코스닥, 코넥스)0.00363960%, ETF/ETN 0.00420870%입니다. ※평생혜택 미적용 계좌 국내 주식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매체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888호 (2021-08-12 ~ 2021-12-31)



빚장 풀린 非아파트, 분양가 규제 없어 가격 상승 불보듯

정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비(非)아파트 규제를 풀고, 분양가 규제의 허들을 낮추기로 하면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빚장을 풀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도 함께 뛰면서 그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15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면적 85㎡로 제한했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120㎡까지 확대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분양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지방 광역시에 주로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 등 공급 늘겠지만 '집값 잡기' 역부족

비교 사업장 규제기준 완화 영향 아파트 청약 자금 부담 커질 듯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심의위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빚장 풀기로 주택 공급에는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분양가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주택 수요자들의 온도 차는 확연히 다르다. 그간 각 지역에서는 분양가 산정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살바싸움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이 최대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막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이 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번 규제 완화에 이들 물량이 조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눈치다.

구분	현행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 반영	단지 규모·브랜드 등 유사 사업장 선별 적용
지역 평균분양가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 고려 조정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

* 출처: 국토교통부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집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비교 사업장의 규제 기준을 개선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청약자들의 자금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반발 여론이 거센 이유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책정 문제로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진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 올림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총 1만2032가구)'의 경우당초 HUG가 보정한 분양가는 3.3㎡당 2978만 원이었다. 재건축 조합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추산한 분양가는 3600만 원 안팎이다. 그

러나 이번 분양가 심사 기준 완화로 둔촌 올림파크 에비뉴포레의 분양가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값은 너무 비싸고, 금융권 대출은 막힌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높아지면 내 집 마련은 이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전일 규제를 크게 완화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정부의 분양가 통제 밖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HUG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급된 주택 중 단위면적당 분

양가가 가장 비싼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의 분양가는 3.3㎡당 7990만 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3.3㎡당 5273만 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오피스텔 역시 상업·업무용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앞으로 대안주거 시설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고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부지보다 좁은 자투리땅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데다 건설 기간도 짧은 등 사업 조건이 덜 까다로워서 시행업체들이 배짱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HUG의 발표가 나오니 세부적인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가계대출 칼 겨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규제 옥죄고 실수요자 보호”

금융협회장 간담회서 강조 “전세대출 강화는 살펴볼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보호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하되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해선 집단대출 문제,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이 모두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인 만큼 어떻게 해 나갈지 앞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나

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도는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으로 경제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소임"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보안 방안을 만들어도 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직후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예고했다. 강력한 메시지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요건까지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고 위원장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10일 금융지주회장 단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박소은 기자 gogumee@

주담대 변동금리, 최고 4.52%로 인상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고 4.52%까지 제시됐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대로 올라가며 본격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2%다. 전월 대비 0.07%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04%,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0.83%로 모두 전월보다 0.02%p 올랐다.

코픽스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KB국민은행 3.02~4.52% △우리은행 3.00~3.71% △NH농협은행 2.78~3.69%를 기록했다.

금융채에 연동되는 하나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2.958~4.258%로 전월 대비 0.007%p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3.19~4.24%로 변동이 없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문수빈 기자 bean@

우리의 도전은 세상의 기록이 되고
우리의 기록은 세상의 역사가 된다

Global Battery Leader

LG 에너지솔루션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어대명이나 이낙연 역전이나...추석 연휴 직후 호남 결투

25일 광주전남 경선·26일 전북 명, 과반 지켜 '무결선 본선' 목표 낙, 연고지 잡고 슈퍼위크서 반전 명낙 캠프, 호남서 표심몰이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위, 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5일과 26일 치러지는 호남 경선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 세 결투와 지역 밀바닥 민심 호소를 위해 사활을 걸 전망이다.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슈퍼위크에서 5연승을 거둔 이 지사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분위기를 굳히기 위해 리스크 줄이기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 투표로 반전의 모멘텀을 갖는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17일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후 5.18 민주화 운동 성지인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광주, 전남, 전북 특별메시지를 발표한다. 18일에는 부인 김혜경 씨와 미혼모 시설인 광주엔젤하우스를 방문한다. 정성호, 우원식, 조정식 의원 등 캠프 핵심지도부도 17일부터 광주에서 총집결한 뒤 각지로 흩어져 세를 규합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부터 주말, 다음 주 초까지 광주, 전남, 전북 일정을 소화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일정을 진행한다. 지역 순회 경선 중 가장 큰 규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왼쪽)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 지사가 12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서로 인사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인 호남 경선의 결과가 앞으로 2차, 3차 슈퍼위크와 수도권 경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전국 80만 명 권리당원 가운데 30~40%가 호남이다. 호남 출신 수도권 거주자 등도 호남 표심 향방에 밴드와 건(편승) 효과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선택에 능한 호남의 표심이 본선 경쟁력을 위해 압도적인 연승 중인 이 지사에 힘을 몰아줄지,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과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에 연고지 '체면치레'를 해줄지 주목되는 부

분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같은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 지지층 또한 대거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던 홍영표, 김종민 의원 또한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백의종군을 선언했기 때문에 단일화 의미는 없지만 개별적인 의원 지지 선언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무결선 본선행'을 목표로 하는 이 지사로서는 과반 득표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 1차 슈퍼위크까지 이슬아슬한 과반 득표(51.4%, 정 전 총리사퇴표 반영 전)였기 때문에 호남 경선을 변곡점으로 삼는 모양새다. 반면 이 지사의 과반을 저지해야 하는 이 전 대표로서는 중도 사퇴를 선언한 정 전 총리의 득표 처리 문제가 변수다. 당 선관위는 15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당헌·당규에 따라 전부 무효표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의 누적 지지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2위인 이 전 대표 지지율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득표 (단위: 표)

이재명	28만5856
이낙연	17만2790
추미애	6만3122
박용진	6963
김두관	3526



31.08%에서 32.46%로 소폭 상승했다. 당헌·당규에 근거하면 정 전 총리의 득표가 무효표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를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정 전 총리의 표를 무효표로 규정한 당헌·당규와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후보를 둘러싸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의 검증 공세에 정면 대응하는 양상이다. 도리어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별도의 TF를 출범한 이재명 캠프는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해 검찰 개혁으로 이어가겠다"며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군소주자 존재감 높이기, 추미애TV 찍고 유승민 TK 찾아

대통령 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군소주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낙연', 국민의힘은 '윤석열·홍준표' 후보로 양강 체제가 굳혀진 만큼 이들이 반등의 기회를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군소주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나름의 방식과 전략을 가지고 국민에게 존재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의 경우, 누적 합산 3위를 기록 중인 추미애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호남 지역 당원과 지지자 비대면 결의대회를 열고, 18일까지 나흘간 호남 투어를 진행한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추미애TV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다. 추미애 캠프 관계자는 호남 결과 전망에 대해 "(추미애 상승세가) 다음 경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예쁘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박용진, 연휴 내내 호남 강행군 원희룡, 영남·제주 당원 스킨십

주실 것'이라며 "추미애 상승세를 보장 해주실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용진 캠프 측은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호남 지역 TV토론이 코로나19 확진자 관계로 무산돼 몹시 아쉽다. 호남 공약 등 TV토론 준비를 많이 했었다"고 전했다. 전북 장수 출신인 박용진 후보는 이번 주말부터 전남, 전북 등지에 강행군을 펼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18일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5일 대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무려 6명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는 2차 컷오프

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후보는 추석 연휴 기간에 영남과 고향인 제주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원 후보는 이 기간에 이들 지역을 돌면서 주로 당원들과 스킨십하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승민 후보는 다시 한번 TK(대구·경북)를 찾아 민심 돌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달 26일 대선 출마 선언 첫 방문지로 본인의 고향이자 4선 의원을 지낸 대구를 선택하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썩취진 '배신자' 프레임에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재형 후보는 14일 캠프 해체를 선언하며 긴급처방을 내린 만큼 주춤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새길 모색과 정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유튜브 '추미애TV' 캡처 이미지(위 사진)와 13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는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측 '화천대유' 역공 "野" 광상도 의원 아들 근무 취업청탁 의심스러워

"실소유주와 광 의원, 대학 동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16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논란에 거론되는 기업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광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지사의 캠프 상황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는 십수 년간 범조를 출입한 기자가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에 검사 출신의 광상도 의원의 아들이 올해 초까지 다녔다고 한다"며 "이것을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름도 없는 이제 막 설립된 신생회사를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성남에 있는 회사를 애써 찾아서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다"며 "취업청탁"의 뇌물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대가성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게 따져 묻기보다는, 광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광 의원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초 퇴사했다"면서 "(광 의원은) 화천대유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인 김모 씨와 성균관대 동문이라고도 한다. 과거 검사와 검찰 출입기자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 의원을 향해 "아들 취업에는 '아빠 찬스'는 없었는가. 명쾌한 답변을 부탁된다"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정세균 빠지자 친문 의원 이낙연 行...여야 최대 변수 '합종연횡'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에서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경선에 사퇴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차 컷오프를 진행하면서다. 향후 후보들 간 중도 포기나 단일화 등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정 전 총리의 경선 사퇴로 여당 경선 구도는 5파전으로 재편됐다. 정 전 총리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떤 역할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민주당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며 "일관된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찬주, 홍준표 지지 최재형 "새 길 간다" 캠프 해체 안철수·김동연 연대 가능 발언

다만, 정 전 총리 측에 합류했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의원·조직들이 이낙연 전 대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정 전 총리 사퇴 이후 민주당 친문계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주의 4.0' 소속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16일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날 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상황에서 정 전 총리가 사퇴했다"며 "민주당 내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참여한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은 경선 1차 컷오프를 앞두고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에서 물러났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캠프 해체'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최 전 원장의 중도 사퇴나 단일화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최 원장은 이를 일축했다. 지난 14일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

니라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지대'의 연합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이후 대권 도전 여부를 밝히겠다고 사실상 출마를 시사했다. 안 대표와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두 연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생각이 같다면 함께 만나 얘기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같은 날 범여권으로 분류된 시대전환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공개 지지에 나섰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어차피 대세는 윤석열〉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어대운이나 무야홍 돌풍이나... 추석 민심잡기 올인

윤석열, TV예능 출연... 보수 텃밭 구미·창원 등 방문 예정 홍준표, 파주 임진각서 실향민 위로... 온라인서 팬과 소통

야권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민심 행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 TV 예능 출연에 도전하며 더 친근한 이미지로 '대세론'을 굳힌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온라인상에서 팬들과의 언택트 소통을 진행해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바람'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5일 대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순위는 비공개로 부쳤지만 두 후보가 압도적인 1, 2위로 예상되는 만큼 11월 5일 본경선 투표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 민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동부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은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연휴 직전에 경북(구미·영덕·포항)과 경남(창녕, 진주, 창원, 김해)을 방문할 예정이다. 1차 컷오프에서 상위권에 안착한 만큼 대세론을 이어가며 2차 경선은 물론 최종

후보에 올라 흔들림 없는 지지율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13일에도 윤 전 총장은 경북 안동을 방문하는 등 꾸준히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북)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윤 전 총장은 추석 연휴 시작과 함께 19일에는 SBS '집사부일체'를 통해 첫 TV 예능에 출연한다. 이날 초 윤 전 총장은 촬영을 마쳤다.

예능 출연은 대선 주자들이 대중과 가까워지는 관문 중 하나가 된 만큼 윤 전 총장 역시 더 친근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지 못했던 친근하고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석열의 A부터 Z까지'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윤 전 총장은 자택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배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성대모사는 물론 직접 노래 부르기 등 보다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출연진들에게 요리도 직접 해주며 "형이라고 불러"라고 하기도 했다. 다리를 벌리고 앉는 '쩍벌' 자세, 말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도리도리'는 물론 '나에게 추미애란' 등의 민감한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집사부일체에는 윤 전 총장 외에 대선 유력 주자들인 이재명(26일), 이낙연(10월 3일) 후보들이 잇달아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해 온 홍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재정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홍 의원은 18일에는 파주 임진각에 있는 망대단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날은 3년 전인 2018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로 실향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망대단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홍 의원 캠프 관계자는 "이곳에는 실향민이 세워놓은 비석도 있고, 북쪽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도 있다"며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이곳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일 홍 의원은 팬(지지자)들과 '소통을 시간'을 갖기 위해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이 시간 동안 홍 의원은 지지자들의 댓글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쌍방향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TV홍카콜라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채널 가운데 최다 구독자(약 50만 명)를 가진 인기 채널이다. 국민의힘이 3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선후보 30초 소개 영상'에서도 홍 의원 영상이 다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조회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北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

文 “北도발 확실한 억지력” 발언에 김여정 “남북관계 파괴”... 靑 침묵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열차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하는 비난 성명을 내면서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침묵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우리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우물거리기 짝이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자들이나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함부로 따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파괴로 치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6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이 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차로 위장한 이동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면 사전 징후 포착과 반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남북한이 '군비경쟁'에 나선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15일까지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북한의 도발이 있기 한 시간 전에도 문 대통령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

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지 한 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비난 성명을 냈다.

우리 정부는 김 부부장의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과거보다 수위가 낮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LBM발사 등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도발'이라는 특정 단어만 문제 삼았다고,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경고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이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남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시험에 직접 참관하지 않은 점, 김 부부장의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에는 실리지 않는 점에도 의미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이번 일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일환 기자 wha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농협생명 서비스 일시중단안내

상 세 안 내

중단사유	주 전산센터 이전
중단시간	2021.09.17(금) 23시 부터 09.23(목) 05시 까지
중단업무	홈페이지, 모바일, 콜센터, 자동화기기(ATM), 농협생명수련원, 온라인보험을 이용한 당사 거래 일체

*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전산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두가 이로운 보험
NH농협생명

연휴 전 1차 예방접종률 70% 넘을 듯... 2차도 속도전

오늘부터 2차 잔여백신 가능 화이자 3주, 모더나·AZ 4주 수급 안정에 접종 간격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이 17일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는 현재진행형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16일 0시 기준 1차 이상 접종률이 68.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

적 접종 인원은 3497만7073명, 성인(18세 이상) 대비 접종률은 79.2%다. 접종 완료율도 인구 대비 41.2%, 성인 대비 47.9%로 올랐다. 1차 접종 인원이 하루 50만 명 이상으로만 유지되면 1차 접종률은 17일(발표기준 18일) 70%를 넘어서게 된다. 성인 접종률은 이날(발표기준 17일) 80%를 넘을 전망이다.

1차 접종률이 목표치에 근접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

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이 1차 접종만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2차 접종도 당일 예약이 가능해진다"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AZ)는 4~12주 범위에서 2차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 잔여 백신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지난달 모더나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접종간격을 6주로 늘렸다. 이번 접종간격 단축은 백신 수급 안정화를 반영한 조치다. AZ 백신의 2차 접종일은 기본적으로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이후이나, 28일부터 본인사정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4~12주 범위에서 예약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20~30대 접종-예약률은 아직 저조하다. 연령대별 1차 접종률은 30대는 65.3%, 20대는 66.1%에 머물고 있다. 예

약률(우선접종대상 제외)도 20대 73.7%, 30대는 65.9%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김 반장은 "지속적으로 이주까지 예약이 진행되고, 9월 말까지는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80% 중반대까지 접종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이 1921명, 해외유입은 22명이다. 1주 전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97명 줄었으나, 수도권 확진자(1506명)는 99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은 당일 오후 피해야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납부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 공공주차장 1.4만여곳 개방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6일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 등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는 귀성 고속도로는 추석 전날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든 메뉴가 포장만 가능하고 통행료는 정상 납부한다. 정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동 시 방역·안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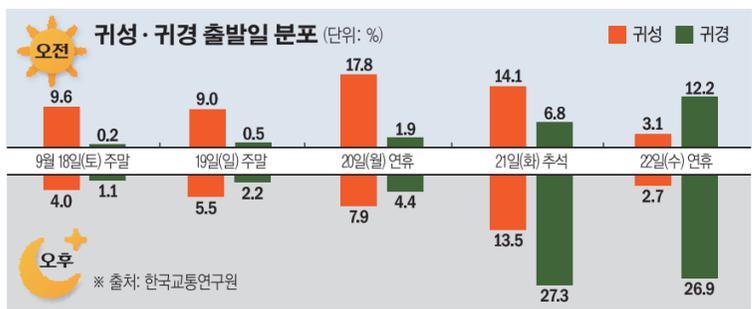
한국교통연구원 따르면 올 추석은 백신 접종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등의 영향으로 귀성·귀경 이동 인원은 3226만 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3116만 명과 비교해 3.5% 증가한 것이다. 추석 당일 최대 62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38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 519만 명과 비교해 19만 명(3.5%)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동 여부가 미확정인 세대가 20.7%(예년 6~7% 수준)에 달하는 만큼

15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때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30분, 서울→광주 3시간 50분, 귀경 때 평균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8시간 40분, 광주→서울 8시간으로 각각 추정했다.

정부는 올해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휴게소에서는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 식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등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항공은 좌석 한 칸 비우기, 여객선은 승선 인원의 50% 수



추석 연휴 직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제 이동 및 혼잡상황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통연구원은 코로나 확산 추세가 완화될 경우 1일 평균 예측 이동 인원은 예측치 대비 11.4%(61만 명) 증가할 수 있으며 더 심화할 때는 4.9%(27만 명)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20일 오전(17.8%),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1일 오후(27.3%)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승용차가 93.6%로 대다수를 차지해 귀경길에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 가능성이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할 때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 시간은 귀성 방향은 최대 1시간 25분 줄어들고, 귀경 방향은 최대 3시간

준에서 관리한다.

암행순찰차(342대), 드론(60대), 헬기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중점 계도 및 단속한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 취약지점 상시 음주단속도 시행한다.

이번 추석 연휴(18~22일)에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1만4237곳을 무료 개방한다. 권역별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수는 서울·경기·인천 4232곳, 대전·세종·충청 1862곳, 광주·전라 1171곳, 대구·경북 2285곳, 부산·울산·경남 3275곳, 강원 1183곳, 제주 229곳 등이다.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이달 17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로나19 추석 가족모임 인원기준

- 기간: 9월 17~23일(추석 연휴 포함 1주일간)
- 지역: 국내 전 지역(4단계 지역 포함)
- 장소: 가정에서만 모임 가능
- 가족 범위: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도 두루 포함

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1차 접종자 포함. 연휴 예약 없음 (영유아도 모임인원에 산정)

접종 완료자 (4명까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연휴는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식당·카페

4단계 6명(18시 이전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2명, 18시 이후 미접종자 2명 + 접종 완료자 4명), 3단계 8명(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허용

요양병원·시설 면회

사전예약 시 방문면회 허용(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 시 접촉면회, 한쪽이라도 미접종 시 비접촉면회)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9월 17일(금) ~ 9월 22일(수) 6일간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고속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

9.20(월) ~ 9.22(수)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해당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사용)

오늘부터 가족모임 4+4... "접종 먼저 하세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17일부터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8명으로 확대된다.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부터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만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 집계 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가족모임 허용 인원 확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가정 내 모임을 제외한 별초·성묘 등 외부활동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더라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가정(가족모임 외) 내 사적모임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18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까지 예외가 인정되며, 18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명에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3단계 지역에선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미접종 4명+접종완료 4명 별초·성묘 외부활동은 4명 예약엔 요양병원 면회 가능 고향 방문 전 접종·검사 호소

최대 8명까지 모임 수 있다. 단 식당·카페·가정을 제외한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예약을 전제로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한쪽이라도 미접종자라면 미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기타 방역조치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고령자인 부모가 미접종자인 경우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에 방문하더라도 방문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이상증상이 발생했다면 방문을 취소·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향 방문 중 불특정 다수가 모임 수 있는 성묘를 자제하고, 귀가 후에는 일정 기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중대본 정례브리핑

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추석 연휴 때 수도권 주민의 이동 증가로 전국적으로 다시 새로운 유행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는 507개 응급실은 정상 가동된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234곳, 민간의료기관 779곳, 약국 1875곳, 선별진료소 368곳, 임시선별검사소 141곳이 문을 연다. 연휴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와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발생할 때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김기남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연휴 중 접종 예상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는 연휴 기간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Life is Good!을 위한 젊은 도전

즐거운 상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꽉 막힌 도시,
시원하게 열어줄래!”**

AI로 교통체증 없이 원활한
세종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LG CNS 박수경

**“신약 개발 속도,
AI로 확 올려볼까?”**

딥러닝 기술로
신약개발 속도를 앞당기는
LG AI연구원 Rodrigo Hormazabal

**“지금 이 분위기
빵 터지게 해보자!”**

AI로 취향을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 장하진



탄소세 도입 땀 장기 성장 하락·물가 상승 '악영향'

한은 기후변화대응 보고서...탄소세 50% 재투자로 상쇄해야 추가 감축 시 '고탄소 산업' 비중 큰 국내 경제 4배 더 타격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가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세 수입의 50% 정도를 투자해야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 중이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16일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박경훈 차장과 전망모형팀 이종웅 과장, 물가연구팀 김찬우 과장 등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C) 내지 2°C 낮추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억7000만 톤에서 2050년 2억 톤(2020년 대비 70%) 내지 제로(100%)로 감축키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2050년까지 경제성장률

(GDP)은 연평균 0.08%포인트에서 0.3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2%포인트에서 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C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2°C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보다 탄소세 부과 영향이 네 배 정도 더 컸다. 상승 폭 목표치를 추가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GDP의 1% 규모를 투자하더라도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진 못했다. 반면, 탄소세 수입의 50%를 투자할 경

우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경훈 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탄소세 수입을 정부가 친환경 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점진적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대비 높고, 수출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은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경제 상황과 기술발전 변화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현재 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 비 배출 연료로의 대체, 기술발전 등도 탄소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추석 자금 방출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방출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추석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기 물고 빠는 목욕완구 친환경·무독성으로 근거 없이 무분별 홍보

환경부, 시정조치 명령 처분

최근 가장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목욕완구 대부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친환경·무독성' 광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완구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개를 제외한 18개 제품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를 사용한 것이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유해물질 무함유' 등 사용 1건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포장재에도 '친환경·무독성' 용어를 사용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와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제품 5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하고 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적법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근로자 1인 고용에 541만원 썼다...中企, 대기업의 70% 첫 진입

국내 1인당 노동비용 1.3% 상승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의 고용 유지하는 데 쓴 노동 비용이 전년대비 1.3% 늘어난 월평균 54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 여파로 상여금·성과급은 10.6%나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0년도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회사법인 기업체 3500여 곳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 비용은 전년대비 6만 7000원(1.3%) 늘어난 540만 8000원이었다. 노동 비용은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제반 비용으로, 정액·초과급, 상여금 등 임금을 포함하는 '직접고용비용'과 퇴직급여, 4대 보험, 주거·



건강보존·식사비, 채용·교육훈련비 등 '간접고용비용'으로 나뉜다. 지난해 노동 비용이 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5%) 이후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경영 실적 악화로 임금이 감소하고 교육훈련 비용 등이 줄어든 탓이다. 직접 노동 비용은 1인당 월평균 428만 400원으로 전년대비 0.8% 늘었지만 이 중 상여금과 성과급은 65만 4000원으로 10.6% 줄었다. 기업들이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여 인건비를 낮춘 것이다. 간접비용인 교육훈련 비용(1만 6000원)도 27.9% 줄었고, 채용 관련 비용(5000원)도 3.6% 감소했다. 반면 퇴직급여 등에 지출된 비용(47만 2000원)은 3.4%, 4대 보험료 등 법정 노동 비용(39만 8000원)은 4.2% 늘었다. 이는 임금과 보험료율 상승 등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이다. 업종별 노동 비용 증감 양극화가 뚜렷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4.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

업(-2.7%), 운수·창고업(-2.6%) 등은 노동 비용이 감소했다.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업(7.1%)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중소기업 간 노동 비용 격차는 축소됐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 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 대비 70.3%로 처음으로 70%대를 진입했다. 전년(68.2%)보다 2.1%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300인 미만의 직접 노동 비용이 371만 7000원으로 300인 이상 499만 4000원 대비 74.4%를 기록했다. 다만 간접 노동 비용의 경우 300인 미만은 83만 9000원, 300인 이상이 148만 3000원으로 절반 이상(56.6%) 수준에 그쳤다. 여전히 대·중소기업 간 간접 노동 비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나노 소재·BIG3 신산업 손잡고 '퀀텀 점프'...정부, 1243억 지원

현대차 등 대기업 20개·中企 30개 얼라이언스 발족 中企 개발 나노 소재, BIG3 대기업서 컨설팅·테스트

나노산업과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헬스) 신산업이 손잡고 도약을 시도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에 1243억 원을 투입해 지원 사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나노 소재·부품이 개발과 공급 등 발전을 위한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얼라이언스엔 나노 소재·부품의 △수요처인 현대차, LG전자, 삼성SDI 등 대기업 20여 개사와 △공급처인 아모그린텍, 네패스, 제이오 등 중소기업 30여 개, 총

50여 개사가 참여한다.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는 나노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전망을 고려해 미래차, 전자 부품, 에너지, 바이오헬스, 환경 등 5대 분야를 수요산업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워킹그룹을 설치해 운영한다. 각 워킹그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나노 소재·부품의 수요 발굴, 공동 기획연구, 사업화 협력 등을 수행하며 정부는 얼라이언스는 나노기술의 확산기 진입

과 향후 나노융합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전담반(TF)을 설치하고 하반기에 민간 주도의 가칭 '2030 나노융합 산업 비전과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나노 소재·부품은 특성상 수요가 특정되고 보통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시장 형태로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얼라이언스 결성에 따라 대기업은 기술 컨설팅, 실증 테스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나노 소재·부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양질의 제품 공급으로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우수한 나노기술을 개발하고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양산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나노기술의 사

업화 과정에서 수요처인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부족이란 애로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빅3 등 신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나노 소재·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잘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는 나노융합2030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나노 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이며 나노융합산업 매출은 142조 원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美 “아프간 대신 中” 영·호주와 대중경제 ‘오커스’ 출범

美,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
표면적으로는 “印·태평양 평화”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 목적

미국이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 강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례적으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한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자마자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공동 화상 회견을 열고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국가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오커스 결성은 3국 간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 세 나라는 사이버, 인공지능(AI), 해저 능력,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한 점이다. 3국은 관련 팀들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그간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1958년 영국이 유일했는데 여기에 호주를 추가한 것이다. 이날 세 정상은 핵확산 비발을 의식한 듯 핵잠수함이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일 뿐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핵 비확산 조치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 **목표:**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 심화 협력체
- **추진:** 국방·외교 정책고위관료 간 회의, 사이버·인공지능·수중능력분야 협력, 정보기술 공유 심화 등
- **첫 구상:**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고 18개월간 공동연구 진행
- **비용:** 660억 달러(약 77조원) 예상

※출처: 외신종합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도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당국자도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고 한 뒤 “솔직히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

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3국이 오커스 결성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지만 숨은 의도는 중국 견제 강화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오커스를 통해 유사시 자국의 핵잠수함을 인도·태평양까지 보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미 여러 동맹 관계로 얽힌 세 나라가 추가로 새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한 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이미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포함된 기밀 정보 공유 협정인 파이브아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전략 하에 아시아에서 영국의 역할 확대를 추구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중국과 첨예하게 갈등해왔던 호주는 핵잠수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작한 무역 전쟁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재구성하기 위해 동맹을 강조하던 상황이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제약사 ‘부스터샷’ 집착에 FDA “필요치 않다” 일침

“중증·사망 보호 충분” 첫 보고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효과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부스터샷 승인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첫 보고서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연구진도 ‘부스터샷’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윤’ 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 주부터 부스터샷에 착수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FDA는 이날 화이자·바이오텀라가 부스터샷 승인 요청을 위해 제출한 데이터를 분석, 처음으로 공개했다. 2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FDA는 자국 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부스터샷 없이도 중증 및 사망 예방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서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4만 4000명을 추적한 결과, 2차 접종 후 감염 예방 효과가 두 달마다 약 6%씩 감소했다며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FDA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백신 효능이 최대 95%까지 회복했다는 데이터와 추가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2차 접종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스라엘 백신 접종자 가

운데 돌파 감염이 발생한 주된 원인이 백신 효과 저하에 있다고도 했다.

미국 모더나도 이날 대규모 시험에서 도출한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부스터샷을 옹호했다. 모더나는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던 지난 7-8월 실시된 연구에서 약 13개월 전 접종한 사람들이 8개월 전에 접종한 이들에 비해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신 제약사 두 곳이 부스터샷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잇달아 내놓고 승인을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출한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일부 연구에서 시간이 흐른 뒤 화이자 백신 효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역력 저하가 돌파감염의 잠재적 요인 중 하나이기에는 하지만, 델타 변이를 비롯한 다른 변이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출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델타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의 면역 반응 데이터가 24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중 ‘유관중’ 전국체전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전국체전 개최지 산시성 시안에서 대회 참가 선수 및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현장에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단도 함께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중국 전국체전은 올해가 열네 번째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가오즈단 대회 조직위원회 부주임은 “도쿄올림픽을 참고한 방역 조치를 통해 ‘제로 감염’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시안/신화연합뉴스

‘中 규제’ 마카오 카지노에 불똥... 시총 21조 증발

“외화 유출과 자금 세탁 대응” 도박법 개정안 발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기업 단속 여파가 마카오 카지노로 번지고 있다. 당국이 카지노 규제 칼을 빼들자 주요 카지노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카지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도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통해 마카오 카지노를 감독하고 엄격한 당점금 배당 통제, 운영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45일간 공개 협의 시간을 갖고 이후 최종 결정된다.

해당 소식에 6대 카지노 업체 중 블루버그인텔리전스(BI)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 급락했다. 샌즈치아나가 33% 하락한 가운데 윈마카오가 34%, 갤럭시엔터테인먼트

는 20% 하락했다. 갤럭시엔터테인먼트의 하락 폭은 10년래 최대로 집계됐다. 이렇게 날아간 이들의 시가총액만 184억 달러(약 21조5409억 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의 압박에 자금 조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채권 시장에서 윈마카오가 발행하는 2028년 만기 채권은 9센트 하락한 91.4센트를 기록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SJM홀딩스와 MGM차이나, 멜코리조트앤드엔터테인먼트 역시 각각 3센트 이상 하락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의 운영 라이선스가 내년 6월 만료되는 만큼 업계는 당국에 반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업계 수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현저하게 줄어들었

다. 최근엔 당국이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하달하면서 마카오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지난달 마카오 카지노의 게임 수익은 2년 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이 카지노에까지 손을 댄 배경에 통화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홍콩 달러로 환전이 가능한 마카오 특성상 불법적인 외화 유출과 자금 세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관련 조사를 현지에서 벌였고, 자국민의 조직적인 도박 여행을 금지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세계 최대 도박 시장으로, 마카오는 중국 내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지역”이라며 “통제 강화 움직임은 라이선스 갱신을 예상하던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상승장 전환〉

비트코인 석 달 만에 ‘골든크로스’ 복귀

“일관된 예측 변수 아냐” 신중론도

가상자산(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상승장 전환을 나타내는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산이 상승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드물지만 면밀히 추적된 패턴”이라고 전했다.

골든크로스란 50일 단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현상으로, 단기 가격 추세가 장기 추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상승장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불과 석 달 전 ‘데스크로스’가 등장한 이후 비트코인의 극적인 복귀를 나타낸다고 코인데스크는 평가했다. 데스크로스란 골든크로스와는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주가가 약세장으로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밑도는 패턴을 가리킨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중순 6만 5000달러(약 7600만 원)에 가까이 다가

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수주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결국 지난 6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데스크로스가 발생했고, 이내 비트코인 가격은 2만86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골든크로스 사례는 지난 2015년 말과 2019년 초가 대표적이던데, 두 경우 모두 기본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상당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마지막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던 지난해 5월 이후에도 몇 달 동안 가격이 치솟으면서 두 배나 급등했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통하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현금보다 낫다는 주장을 펼치며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골든크로스 지표 해석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제임스 버틀러 코인세어스 투자 전략가는 링크드인 포스트를 통해 “(골든크로스 지표는) 긍정적 수익률에 대한 일관된 예측 변수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골든크로스를 강세의 기술적 신호로 언급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절반 교체... 원점 재검토

금융위, 4개월 만에 의견 논의
금감원 제재심 재개최 가능성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잠정 중단된 안건소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개되는 데, 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대주주부당지원 심의를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소위는 오는 17일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위원, 중선위 상임위원, 법률자문관 등 5명으로 구



성대 있는데, 최근 위원 3명이 교체됐다. 내일 소위는 교체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첫 자리가 된다.

지난번에도 안건 소위가 5차례 개최되며 지연된 만큼 새로운 위원들과 논의하는 기간도 비슷하게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은 올해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건 소위만 8개월째 끌고 있는 데다가 정례회의 일정까지 고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삼성생명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는 지난 8월 압보험 건에 이어 오는 10월 8일에는 대주주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와 삼성생명 제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령 해석상의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

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 안건 소위는 2차례 가량 개최 이후 정례회의로 넘겨지며, 법령해석심의위에 자문하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의 보험금을 부지급, 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압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의사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법령해석위에 올라간 핵심 쟁점이었고, 결론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내려졌다는 얘기다. 이런 결론은 그동안 삼성생명 쪽이 주장해온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자체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기관경고를 내린 데에 대한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는 금융위의 결정과는 별개인 금감원장의 권한이지만, 제재심을 재개최하는 것 또한 원장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정은보 원장의 선택에 달렸다"며 "금융위에서의 결정과 별개로 금감원이 기관경고 결정을 고수한다면 삼성생명도 소송 등의 방법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이 부임 이후 삼성생명 중징계를 주도한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결국 무리한 제재를 질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서지연 기자 sjy@

한신평 "카뱅, 가계대출 편중... 유연한 규제 대응 어려울 것"

신용대출 70%·주택대출 30%
실행 대출 전액이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개선중"

카카오뱅크가 높은 가계대출 비중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공개된 한국신용평가의 '금융에 번져가는 핀테크 영향' 팟캐스트에서 한신평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여윤기 수석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뱅크에 대해 "가계대출에 편중된 영업기반은 기존은행 대비 영업 기반 안정성 측면의 열위요소"

라고 평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여신종별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 신용대출 70.9%, 가계 주택대출 29.1%으로, 실행된 대출은 전부 가계대출로 파악됐다. 일반은행의 경우 가계 신용대출 15.1%, 가계 주택대출 36.8%로 가계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9%에 그친다는 점과는 명백히 비교된다.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뱅크의 가계 신용대출 중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89%에 달하며, 가계 주택대출 역시 전액 전월세보증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여 애널리스트는 "가계대출에 편중된 여신구조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 등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면서 "단, 신규 상품 출시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시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의 성장세가 다각화를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는 현재는 일부 가계대출에 한정돼 영업을 하다보니 다른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부분은 있다. 카카오뱅크는 아직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풀뱅크 서비스(Full-Banking)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전체 원화대출금 규모는 9번째에 불과하다.

하지만 향후 풀뱅크 서비스를 갖추면

시장 지위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주담대의 혁신성, 동일 상품 출시 난이도에 따라 성장의 폭은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충하면서 대출 여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카카오뱅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인 BIS 비율이 올해 6월 말 수준인 19.9%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는 43조 원에서 59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직인없는 가상자산 감독 공문

▶1면서 계속

금감원은 협조 사항이라 간단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문서 발송을 전후로 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적시된 내용이 공식적인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 특근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튿날인 19일 금감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종료·폐업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 폐업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감원의 업무 관행을 놓고, 감독 내용 전달에 따른 업계의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지적이다.

www.douzone.com

DOUZONE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

Amaranth 10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문서 관리

제41회 삼성생명 미술대회

함께 소통하는 온택트 미술대회

| 접수기간 : 2021.08.18(수) ~ 09.17(금) |



위 일러스트 이미지는 제40회 삼성생명 미술대회 수상자가 직접 디자인하였습니다

예선 접수	본선 대회	시상식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본선대회 진출자	부문 후원기관상, 작품상 등
기간 2021.8.18(수) ~ 9.17(금)	일자 2021.10.23(토)	일자 2021.11.14(일)
방법 온라인 접수	방법 온라인 진행	방법 온라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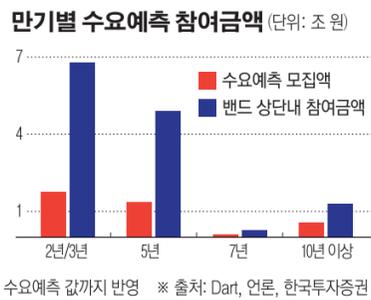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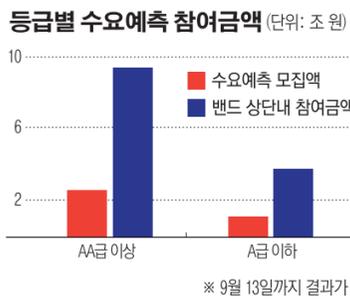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우량도 흥행 대박” 뜨거운 회사채 시장

금리인상 앞두고 발행 러시, 국민연금 등 기관이 ‘줍줍’ 이달 들어 5.6조 발행... 비우량 수요예측에도 ‘몽치돈’ SK렌터카·E1·쌍용C&E 수요예측 초과율 800% 넘어

신용등급 ‘BBB’인 두산퓨얼셀은 16일 75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금액은 수요예측(사전청약) 때보다 250억 원 늘어났다. 지난 8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모집금액(500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540억 원이 매수 주문이 쏟아지면서 발행액을 늘렸다. 두둑한 실탄을 확보한 두산퓨얼셀은 수소 사업 영토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두산퓨얼셀은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최초로 50MW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순수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경제 발전소 모델을 실현하는 데도 성공했다. 현재는 수소와 전기, 열을 동시 생

산할 수 있는 트리젠(Tri-gen) 모델을 개발해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A0’ 등급인 SK렌터카가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실시한 수요예측에도 71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SK렌터카는 기업어음(CP)을 갖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으로부터 700억 원 규모의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다. 회사채 시장 열기가 뜨겁다. ‘A’ 등급 이하 비우량 기업의 사전청약마다 잇달아 수조 원의 몽치돈이 몰리고 있다. 신용등급 ‘A+’인 롯데건설이 대표적이다. 지난 3일 수요예측 때도 경쟁은 치열했다. 지난 7일 수요예측 때도 경쟁은 치열했다. 1300억 원 모집에 3100억 원의 매수 주



문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9월 들어 5조6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됐다. 특히 SK렌터카(A0), E1(A+) 쌍용C&E(A)는 회사채 수요예측초과율이 800%를 넘었다. E1(A+), DL건설(A-), 동원엔터프라이즈(A+), LG디스플레이(A+), 쌍용C&E(A) 등이 기관 수요예측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 허영주 연구원은 “크레딧채권 유통시장은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9월 발행시

장은 전체 수요예측초과율이 400% 선을 회복하면서 안정적인 발행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흥행한 데는 발행사(공급)와 투자자(수요)의 ‘입맛’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은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는 1.958%다.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우행)으로 세계 각국의 초저금리 기조 속에 시장 금리는 2년 가까이 2%대 초반을 넘나들고 있다. 기업이 서둘러 발행한 회사채는 신규 운용자금을 손에 쥐는 기관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다. 풍부한 자금을 쥔 큰손(기관투자자)들이 1%대 초반인 국채(3년물 금리 1.510%) 대신 우량 회사채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또 기업이 발행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도 기관의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실제 기관투자자의 ‘형남’ 격인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전체 자산의 절반을 ESG 관련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비우량등급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량등급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용스프레드가 더 축소된 상황이 가격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찾는 투자수요로 인해 장기물과 하위 등급의 상대적 아웃퍼폼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자사주 매입’ 카드에도... 게임株 ‘날개없는 추락’

신작 부진, 중국발 규제 등 악재에 쌓인 게임 기업들이 주가 부양책으로 자사주 매입을 꺼내 들었다. 자사주 매입 결정에도 위축된 투자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력 게임의 실적, 신작 성과가 게임 기업의 주가 방향을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웹젠은 103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목적은 주기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다. 총 35만5000주를 장내에서 직접 사들일 예정이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때 기업이 자기 자금을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 미래 현금흐름을 높이기 위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지분율이 높아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웹젠은 지난 9월 신작 ‘뮤 아크엔젤 2’ 출시 후 주가가 연일 하락하자 주가 안정 목적을 내세워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5만 원

엔씨 1899억·웹젠 103억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에도 반등 못하고 연일 하락세 “신작 성과, 주가 향방 좌우” 까지 올랐던 주가는 15일 종가 기준 2만8000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뮤 IP를 이용한 2개 신작이 중국에서 출시됐지만,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뮤 아크엔젤 2’에 이어 하반기 다른 신작이 중국에서 출시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흥행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자심리 역시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소울 2’ 흥행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1899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올해 초 엔씨소프트 주가는 100만 원을 훌쩍 넘어 ‘황제주’로 불리기도 했지만, 신작 출시 후 낙폭이 커지며 60만

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에도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리니지 기반의 게임성, 과금 BM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적인 신작을 개발해 출시하는 게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후속 신작인 ‘아이온 2’, ‘프로젝트 TL’을 시작으로 해당 전략을 반영해야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게 가능한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소셜 카지노 게임 기업 미투젠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공시했다.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지만, 실제 부양 효과는 미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게임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내세운다는 건, 이제 투자자에게 내세울 카드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게임 기업은 신작 출시 전 기대감, 출시 후 시장 반응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 향후 성장하는 수익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오히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lijh@

맥 못추는 카카오, 목표가 줄하향

삼성증권 20만원→18만원 한화증권 17만원으로 내려

카카오가 정부의 플랫폼 규제란 악재에 성장성이 우려되자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를 잇따라 낮춰 잡으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카카오의 모빌리티와 페이 사업 부문 가치를 각각 2조5000억원, 6조8000억원으로 낮추는 곳까지 있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증권, 한화증권 등 국내증권사들이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모빌리티 부문 관련 기사 프로 멤버십 비용 인하, 스마트콜 서비스 중단, 대리운전 중개수수료 기준 고정 20%에서

0~20% 변동 요금제 변경 등이다. 그러나 성장성과는 별개라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주가도 약발이 들지 않는다. 이날 카카오는 -0.82% 하락한 12만1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치 조정이 필요하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주가는 기존 2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신규 사업 영역에서 수익화를 성공시키며 기업가치를 증대시켜온 점을 고려하면, 단기 모멘텀은 부진할 것”이라며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확장성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아쉽다”면서 목표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미래에셋증권 “자사주 매입” 우선주 포함 1300만주 1000억 규모

미래에셋증권은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 주식은 보통주 1000만 주, 미래에셋증권2UB 300만주로 각각 유통주식 수의 약 2.04%, 2.1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달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내에서 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이미 발표한 2021~2023년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자사주 취득의 대상에는 우선주도 포함시켜 주주환원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주분들께 안정적 수익과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하나금융투 ‘증여랩’ 판매액 1000억 돌파

‘글로벌투자+증여’ 차별화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6월 말 선보인 ‘증여랩’이 출시 3개월 만에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16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증여랩은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들의 주식으로 랩을 구성했다. 미국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가운데 투자한다. 특히 ESG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이 선정된 핵심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여 재산가액이 43조 원을 넘어섰다. 2010년 9조 원과 비교해 약 5배 가량 시장이 성장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증여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발 빠르게 관련 상품인 증여랩을 출시해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 중요했다는 평가다. 하나금융투자의 차별화 전략도 통했다. 증여랩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목적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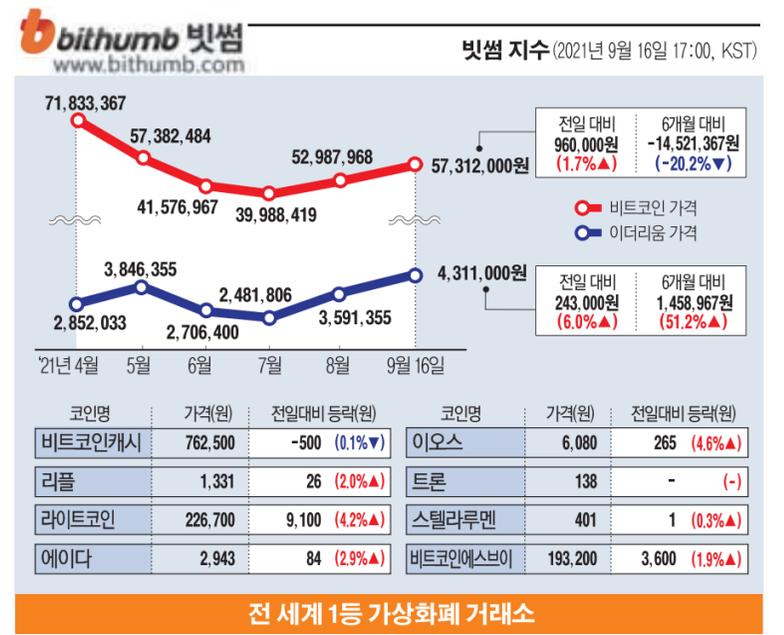
지만 선정 종목 자체가 좋아 투자상품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상품 가입자 중 MZ세대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모와 MZ세대를 아우르며 ‘글로벌투자’와 ‘증여’ 두 가지 컨셉이 긍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또 증여랩은 증여에 필요한 신고서비스 대행 등 여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게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어 증여와 투자 두 가지 효과를 얻고자하는 손님들에게도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쉬세븐 ‘물량 떠남기’ 의혹

▶1면서 계속

앞서 아쉬세븐측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흡소핀은 처음 몇 번가량 매진되면 그 다음부터 방송을 잘 잡아 준다”며 “(조합원들을 통해) 3번 정도 매진을 시키면 판매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인 창고에 300억 원어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언급과 결을 같이한다. 시측은 일부 조

합원에게 재고가 200억 원어치라는 언급도 있었다. 회사측의 주장대로 흡소핀에서 판매가 성사되더라도 ‘물량 떠남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조합원과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조합원 처지에서는 실익도 없이 비용을 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기한이 수개월 정도로 짧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출이 막힌 상황에서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 폰이라도 건지기 위해 혈값이라도 모두 팔아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LG 생활가전 전초기지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재탄생

창원 '스마트파크' 1차 준공

LG전자 글로벌 생활가전 사업의 핵심 생산기지인 창원사업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LG전자는 16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LG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 생산동의 1차 준공식을 열었다. LG스마트파크는 직공모를 통해 선정한 창원사업장의 새 이름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LG전자 권봉석 사장, H&A사업본부장 류재철 부사장을 비롯해 하병필 경상남도 도지사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총 8000억 원을 투자해 주방 가전을 생산하는 기존 창원1사업장을 친환경·지능형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4년간 약 4800억 원을 투자해 이번엔 통합생산동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LG전자는 개별 건물에 분산돼 있던 제품별 생산라인을 하나의 생산동에 통합했으며 이번 1차 준공으로 냉장고, 초(超)프

시그니처 등 3개 라인서 先生산 2024년까지 2개동 6개 라인 구축

조립·포장 등 공정 자동화 확대 연산능력 200만대 → 300만대

리미엄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등 3개 라인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LG전자는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2024년까지 통합생산동과 창고동 등 총면적 33만6000㎡ 규모의 2개동 6개 라인을 갖춘 지능형 자율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신축 통합생산동은 조립, 검사, 포장 등 주방가전 전체 생산공정의 자동화율을 크게 높였다. 설비, 부품, 제품 등 생산 프로세스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했다. 또 더러움을 통한 사전 품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



LG전자가 16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LG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생산동의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통합생산동의 냉장고 생산라인에서 로봇이 냉장고를 조립하는 모습. 사진제공 LG전자

하는 등 생활가전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구현했다.

LG전자는 최고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능형 무인창고, 고공 컨베이어와 같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한 입체 물류 기반 자동공급 시스템 등을 통해 부품 물류 자동화를 확대했다.

LG유플러스의 '5G 전용망 기반 물류로봇(Automated Guided Vehicles·AGV)'은 공장 내에서도 끊임 없는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통해 가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한다.

통합생산동이 최종 완공되면 최대 200만 대 수준이던 기존 창원1사업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300만 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LG전자는 '모듈러 디자인(Modular Design)'에 최적화된 생산 설비로 제조 공정을 단순화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였다. 모듈러 디자인은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솔루션을 묶어 표준화된 모듈로 설계하고, 원하는 모듈을 레고 블록처럼 연결해 다양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글로벌 가전시장 역사를 써온 창원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며, 프리미엄 가전의 국내 생산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LG스마트파크 구축을 계기로 전 세계에 있는 LG전자 생산공장에 창원을 롤모델로 한 지능형 자율공장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통합생산동이 완공되면 건물 에너지 관리 솔루션 '비컨(BECON)' 등 첨단 에너지 설비와 기술 적용으로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효율도 약 30% 개선될 예정이다. 철저한 내진 설계 등을 갖춰 최고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송영록 기자 syr@



예술 품은 삼성 TV '더 프레임'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적 박물관 '루브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을 통해 루브르 대표 작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업으로 스페인 '프라도', 러시아 '에르미타주'에 이어 루브르까지 세계 유명 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더 프레임에 추가하게 됐다. 더 프레임 사용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등과 같은 명작뿐만 아니라 루브르 피라미드, 킬리리 정원 등 박물관 건물과 풍경이 포함된 대표 작품 40점을 '아트 스토어'에서 감상할 수 있다. 더 프레임 전용 플랫폼인 아트 스토어는 전 세계 42개국, 600명이 넘는 작가의 작품 약 1500점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SK가 투자한 '쏘카 말레이시아' 650억 자금유치

동남아 공유차 플랫폼 사업 박차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 SK주는 말레이시아 차량 공유 1위 사업자 쏘카 말레이시아(Socar Mobility Malaysia)가 총 5500만 달러(약 6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East Bridge Partners)와 말레이시아 다국적기업 사임다비(Sime Darby) 두 곳이 참여했다.

쏘카 말레이시아는 2017년 SK주와 쏘카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돼 2018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SK주는 쏘카 지분을 추가 인수

해 현재 최대 주주로서 현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쏘카 말레이시아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동남아의 주요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동남아 선도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SK주는 사업 초기 현지 차량 공유 사업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 한국형 차량 공유 플랫폼의 현지화에 주력해왔다. 경쟁사보다 2배 가까이 확보한 차들과 주요 대도시로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며 출시 2년여 만에 쏘카 말레이시아를 현지 최대 차량 공유 사업자로 키웠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진출해 6개월 만에 회원 수 10만여 명을 확보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내달 첫 온라인 개최

삼성전자가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를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이후 2년 만의 개최다.

삼성전자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가 다음 달 26일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SDC는 삼성전자의 개발 도구와 서비스 등을 글로벌 개발자와 파트너 등에게 공개

하고, 차세대 기술을 논의하는 행사로, 매년 10~11월께 글로벌 IT 개발자가 몰려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등에서 열린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에선 여태까지 인공지능(AI) 플랫폼 '빅스비'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 관련 개발 도구(SDK), 갤럭시 스마트기기를 'One UI', 다양한 스마트 TV 서비스 등이 공개됐다.

노우리 기자 we1228@

원자재 값·금리·물가 상승 제네시스, 美 권장소비자가격 올린다

자동차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판매회사 성과보수 지급 축소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 현지 판매 가격 인상에 나섰다. 동시에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 성과보수는 축소했다. 주력 세단 G80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이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가 올 하반기 G80을 시작으로 미국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MSRP)은 동결하되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성과보수 축소를 가격에 대응해왔다"면서도 "재고가 줄어드는 만큼, 불가피하게 MSRPs를 인상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네시스는 미국 현지에서 2022년형 G80을 선보이면서 등급별로 가격을 올렸다. 2.5 터보는 약 400달

미국 신차 CPI(소비자물가지수)



러, 3.5 터보는 최대 700달러 수준 가격을 올렸다.

제네시스의 미국 현지 가격 인상은 다양한 외부 환경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다. 먼저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탠달티스로 대변되는 이른바 '빅3'의 생산 감소가 진행 중이다. 올 들어 7월 누적생산량 기준으로 GM과 포드의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7월 누적)과 비교해 각각 -24.6%와 -34.9%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수

요가 증가 중인 반면, 자동차 회사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도 자동차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연준 인덱스를 바탕으로 미국 고용통계국이 발표하는 자동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30포인트 전후에서 올해 8월 역대 최고치인 159포인트를 기록했다. 9월 CPI 역시 전월 최고치와 유사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제네시스 역시 G80을 시작으로 주요 모델의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 감내해왔고, 가격 인상 시점을 검토해왔다"라며 "가격을 올릴 때도 시장의 거부감이 없는 시기와 수준을 결정한다. 미국 현지 재고와 판매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스코-현대제철, 굴 껍데기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

버려진 폐각 92만톤, 석회석 대체 이산화탄소 41만톤 감축 효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굴이나 조개 등의 껍데기를 일컫는 폐각 폐기물을 제철공정 부원료로 재탄생시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폐각을 제철 부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폐각 성분이 소결 공정에서 사용되는 석회석 성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남 여수 폐각 가공 전문업체인 여수

바이오와 함께 석회석을 폐각으로 대체할 방안을 공동 연구해왔다.

소결 공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고로에 투입하기 적합한 소결광 형태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석회석은 소결광의 형태를 구성하고 성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거듭된 연구 끝에 15일 여수바이오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각 재활용환경성 평가 승인을 획득했다.

폐각은 전국적으로 연간 30~35만 톤 정도 발생하나 그동안 활용처 제한으로 여촌

지역에 방치되기 일쑤였다. 포스코, 현대제철이 폐각을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지역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석회석 대체재 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도 가능해졌다. 버려진 폐각 약 92만 톤을 제철공정에 활용할 경우 소나무 약 3억 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인 약 41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폐자원 선순환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200대 유럽행

쌍용자동차가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 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15일 경기 평택항에서 선적된 코란도 이

모션 초도물량은 약 200여 대로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며 11월부터 현지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쌍용차는 지난달 24일 정용원 관리인,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평택공장에서 코란도 이모션 양산기념식을 열었다. 쌍용차는 이번 유럽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등 부품수급 상황을 고려해 출시 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장동하 교원 기획조정실장〉

교원 '2세 경영' 시동, 장남 핵심계열사 최대주주로

**장 실장, 교원크리에이티브 지분 70%... 신사업 발굴 집중
후계구도 활용 관측에 그룹 "사업재편, 경영승계 발판 아냐"**

장평순 교원 회장의 장남인 장동하(사진) 교원 기획조정실장이 후계 구도의 5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교원그룹이 최근 부동산(투자)과 교육을 양대 축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 핵심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장동하 실장이 등극한 까닭이다. 장 회장이 견재한 데다 그룹 정점에 있는 회사 지분을 짝 쥐고 있는 탓에 승계 구도가 완전히 결정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나 어느 정도 후계 구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그룹 안팎에서 나온다.

교원그룹은 앞서 지난달 말 부동산과 교육을 중심으로 그룹 내 사업을 재편한다고 대외에 선포했다. 교육과 비교육 사업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비롯해 법인별 사업 영역의 경영 비효율성 해결 등 지속성장사업 사업 재편의 목적이었다.

교원그룹은 부동산·투자 관련 법인인 교원-교원프라퍼티-교원인베스트 3개사

와 교육사업법인인 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 2개사의 합병을 가결했다. 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다.

사업 분야별로 부동산은 교원프라퍼티가 교원과 교원인베스트 2개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원프라퍼티와 교원의 합병비율은 1대 0.64이며, 교원인베스트는 교원프라퍼티 100% 자회사여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또 교육사업 법인은 교원에듀가 교원크리에이티브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병비율은 1대 6.3이다. 다만 교원구몬은 브랜드 독립성을 위해 합병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동하 실장이 등장한다.

장 실장은 피합병법인인 교원크리에이티브 지분 70%를 가진 최대주주다. 나머지 30%는 자사주다. 또 교원에듀는 장 회장 외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합병비율대로라면 장 실장은 과반에



가까운 지분으로 자산 규모 5000억 원을 웃도는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관계자는 "아무래도 비상장사이고 지분율에 대해 공개를 안 하고 있어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비율로 유추해보건데 최대주주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설익기는 하나 교육 합병법인을 승계 디딤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다. 후계자가 핵심 계열사의 최대주주에 오르고 기업가치를 키운 뒤 그룹 내 정점에 있는 회사와의 합병 내지 지분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흔히 쓰이는 경영권 승계 방법이다. 장 실장은 교육 합병법인 외에도 교원라이프의 최대주주로 있다.

다만 교원은 이러한 관측에 대해 너무 앞서갔다는 평가다. 일단 장 실장이 그룹 정점에 있는 교원프라퍼티 지분이 없고 기업가치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룹 관

계자는 "승계를 염두에 뒀다면 프라퍼티 지분을 가져와야 했을 것이나 (장 실장) 지분이 하나도 없다"며 "또 프라퍼티가 합병하면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웃도는 등 격차가 커 승계와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재편은 경영 승계를 발판 삼으려 한 것이 아니다. (장 실장이) 신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 후계 구도

를 인정한 것 같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교육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기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과 기초실장으로서 미래 먹거리, 신사업에 집중한다. 합병법인 교원에듀는 기존 에듀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복의순 대표와 그룹 내 IT 연구개발조직을 이끈 신영욱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카카오 통신 자회사 180억 유증

스테이지파이브, 알뜰폰 강화

카카오가 5G-알뜰폰 사업을 하는 스테이지파이브에 추가 투자를 진행했다. 스테이지파이브가 알뜰폰 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카카오는 투자자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전년 스테이지파이브에 1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우선주 7만1299주)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 증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뿐만 아니라 휴맥스, 신한금융투자, 굿플랜디다이렉트 조합이 참여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2015년 설립된 회사로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투자를 받아 2017년 카카오 계열사로 합류했다. 5G와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월 9000원의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신한은행과 통신·금융 결합 특화 요금제, 구독 서비스 형태의 새로운 유저 중심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이 같은 확장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했다. 2019년에는 워터베어캐피탈과 IBK캐피탈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390억 원을 확보했다. 당시 스테이

지파이브는 약 3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매출액 36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투자금 확보를 통해 5G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부에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파이브가 신사업에 진출해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톡을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카카오페이로 요금을 낼 수 있는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며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도 강점이다.

다만 카카오가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방위적 규제 압박을 받는 와중에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 공동체의 상장 일정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가운데 이통 서비스 사업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투자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기존 계열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투자 금액은 회사 및 투자사들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엔씨, 인디게임 후원 "상생 선도"

**BIC·인디크래프트 등 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앞장"**

엔씨소프트가 게임업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인디 게임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산 인디커넥트페스티벌(이하 BIC) 2021'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선 5월에는 '2021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게임쇼(이하 인디크래프트)'를 후원하기도 했다.

인디크래프트와 BIC는 국내 인디 게임 활성화에 위한 대표적인 행사다. 인디크래프트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인디 게임 공모전이다. BIC는 올해 7회째를 맞이한 글로벌 인디 게임 축제다. 전 세계 27개국의 121개의 작품을 소개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엔씨소프트는 인디크래프트 행사가 출범한 2019년부터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BIC는 지난해부터 지원하며 업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제한과 오프라인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평가다.



또 엔씨소프트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인디게임사와 중소기업, 아카데미 지원을 위한 인디 쇼케이스 지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지스타는 엔씨소프트의 지원으로 인디 게임사 및 중소기업 58개사가 참가해 게임 홍보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도 엔씨소프트는 국내 주요 게임쇼 중 하나인 '플레이엑스포'를 지원하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양한 채널로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게임 업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게임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미스트롯 2 참가수 양지은



수입산 분말이 아닌 좋은 성분 가득한 생알로에만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알로에의 진심을
키웁니다**

김정문알로에

주문전화 1588-8870 고객센터 080-022-9191(무료) 공식몰 <https://cureofficial.com>

한 번 보면 놓치지 않을 가야 요



예리한 눈에 명석한 두뇌
DIGICO KT의 프로파일러
저는 **기가아이즈**입니다.

움직임을 감지해 정확히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AI 영상분석을 통해 도난사고, 화재
등의 감지가 가능하죠.

모두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잠시도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GiGAeyes

클라우드와 AI 기술 활용
영상분석을 통해
도난, 사고, 화재 등 긴급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미래형 보안 서비스

- 끊임없는 Full HD
 - 안전한 원격저장
 - AI 영상분석
 - 기타 특징점
- 선명한 200만 화소 FHD영상
화재, 도난 등에 의한 영상 걱정 끝
침입 감지는 물론, 피플카운팅 등 마케팅분석까지
깔끔한 매장 인테리어, KT 통신상품 결합 할인

 **기가아이즈 가입문의 100번**



김치 담그는 팔도, 비건 식당 여는 농심 새 밥상 차리는 식품업계

팔도 MZ 겨냥 '틈새맛김치' 출시
농심 비건 레스토랑 셰프 채용
신사업으로 지속성장 발판 마련



'비빔면 강자' 팔도가 김치 사업에 도전한다. 새 카테고리 확장·발굴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연초 비건 사업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농심은 비건 레스토랑의 문을 열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앞세워 젊은 아이디어를 수혈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집콕족 영향으로 활기를 띤 식품업계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신사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치, 라면에 이어 코로나 이후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까지 글로벌 입맛을 사로잡은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K푸드의 성장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팔도가 매운맛 전문 브랜드 '틈새'의 신제품 김치를 포함해 2종을 출시하고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최근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식문화 트렌드와 더 맵고 독특한 매운맛을 즐기는 '맵부심'이 강한 MZ세대를 겨냥해 기획했다. 신제품은 △틈새맛김치 △틈새레드페퍼 2종이다. '틈새' 브랜드 핵심 컨셉인 강렬한 매운맛을 한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반찬인 김치와 다양한 요리에 첨가할 수 있는 고춧가루 시즈닝 형태로 선보였다.

팔도 측은 HMR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김치를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매운

맛 브랜드 '틈새'는 현재 라면을 비롯해 비빔장, 핫도그 시리즈, 볶음면, 떡볶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집밥족, 간편하게 한끼를 해결하는 밀레니얼세대를 겨냥해 치솟은 HMR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틈새맛김치는 밑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고, 틈새 레드페퍼는 밑반찬으로는 물론 국·탕·찌개 국물 요리, 치킨, 삼겹살 등과 어우러지는 만큼 조미료 역할을 한다.

김성희 팔도 브랜드매니저는 "틈새맛김치와 틈새레드페퍼는 매운맛의 대명사인 '틈새라면'을 간편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틈새'만의 강렬한 매운맛을 살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매운맛 전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서울에 비건 레스토랑 문을 연다. 농심은 이날 말까지 비건 레스토랑을 운영할 셰프 채용을 진행하면서 비건 외식 사업에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농심이 보유한 식물성 대체육 기술 등을 접목한 일반 외식 메뉴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체육 시장이 100억 원대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비건, 대체육 메뉴에 아직 덜 익숙한 현실을 감안해 브랜드 경험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이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메뉴개발을 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오픈 날짜나 메뉴, 위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농심의 이 같은 움직임은 7월 농심 회장직에 오른 신동원 회장의 의지와도 연결된다. 신동원 회장은 '만면왕'으로 불린 아버지 신준호 회장의 라면 신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과 대체육 등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심의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버지의 열정이 담긴 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심의 미래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대체육 등 식품 사업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치명가 대상은 앞서 5월 '미원 라면'을 앞세워 라면을 공식 출시한 바 있다. 대상이 국내에서 라면 제품을 선보인 것은 미원 라면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글로벌 일부 유통채널에 한해 '종가집 김치라면'을 내놓은 것 이외에는 라면을 출시한 적이 없었다. 성과도 좋다. 미원 라면은 출시한 달여 만에 판매량 50만 개를 돌파해 당초 목표한 판매량의 2배를 달성했다.

하이트진로는 스타트업 투자에 공들인다. 업종 경계를 넘나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주류 사업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스마트팜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유통 및 시설 판매를 하는 스타트업 '그린'과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가 스타트업에 지분투자를 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스마트팜 시장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임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설명이다. 김해지 기자 heyji@

빅 모델 내세워 신제품 홍보 패션업계 가을·겨울 마케팅

CJ온스타일 '더엣지' 한예슬
'세루티 1881...' 이지아 모델로
롯데백 오늘부터 캐시미어 페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패션 성수기인 가을겨울(F/W) 시즌 시작에 맞춰 홈쇼핑과 백화점, 이커머스 등 유통가의 마케팅이 벌써부터 활발하다. 업계는 빅 모델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고 캐시미어 등 F/W 시즌 대표 상품 구색을 강화해 소비자 이목을 집중시킨다.

올해 유통가의 패션 시장 공략 키워드는 '온(ON) 타임' 전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엔 '이른 가을', '이른 겨울'을 콘셉트로 한 발빠른 판매가 주된 전략이었지만, 코로나로 외출이 줄며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기획해서 판매하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CJ온스타일은 F/W 시즌 자체 브랜드 소재나 디자인 퀄리티를 고급화하는 동시에 스타 모델과 시너지를 통해 패션 매출을 끌어올리겠다고 16일 밝혔다.

셀럽샵 에디션의 김하늘, 더엣지의 한예슬, 세루티 1881 팜므의 이지아, 지스튜디오의 이나영, 장미헬바스키아 원빈, 에디바우어 유연석 등 유명 스타들이 자체 브랜드 모델로 활약할 예정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CJ온스타일의 대표 패션 브랜드 더엣지(The AtG)는 브랜드 모델로 배우 한예슬이 활동 중이다. <사진>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오늘의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콘셉트로 TV 상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온라인 전용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프리미엄 여성 수트 정통 브랜드 '세루티 1881 팜므'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우스'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이지아를 뮤즈로 내세운다. 첫 론칭 방송에서 선보인 실크블라우스는 방송 30분 만에 2500개의 상품이 팔리며 매진됐다.

롯데백화점은 17일부터 전점에서 '2021년 롯데 캐시미어 페어'를 진행한다. 올해 롯데백화점이 준비한 '캐시미어 페어' 상품은 총 33개 스타일, 188품목으로 전년 대비 스타일은 12개, 전체 품목은 51개 늘었다. 캐시미어의 대중화를 넘어 다양한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해 컬러와 디테일에 변화를 주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유닛 캐시미어 100% 여성 크루넥 니트(12만 9000원)'다. 캐시미어 100% 원사로 아이보리/오렌지/브라운 등 총 6가지 다양한 컬러를 선보인다. 또한, '유닛 캐시미어 100% 여성 가디건(19만 9000원)'의 경우 넉넉한 기장감으로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으며, 브라운/카키 등 4가지 컬러로 판매된다.

G마켓과 옥션은 22일까지 가을 의류 프로모션 '패션스퀘어 연휴하이라이트'를 통해 가을 패션 전장에 가세한다. 총 283개 패션브랜드 인기 상품 및 F/W 이월 특가상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G마켓에 공식 입점한 미국 유명 패션브랜드 '타미힐피거', '타미진스'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 제수용 홍로 한정판매

이마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균 550g 내외 상위 1% 크기의 제수용 홍로 사과(2입)를 22일까지 6000팩 한정으로 1만 4900원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사과의 경우 평균 330g 내외다. 추석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큰 사과 역시 최대 450g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트는 제수용 사과의 경우 사과의 크기가 큰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장수, 거창 등 고산지 농가에서 직접 매입한 550g 내외의 상위 1% 왕특과 사과를 한정 물량으로 선보인다. 사진제공 이마트

섬유유연제·탈취제로 바이러스까지 차단

P&G '다우니항균파워' 출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 생활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 역시 커졌다. 예전에는 세탁만으로 안심했다면, 요즘은 세탁 후 섬유유연제나 바이러스 증식을 방지해주는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탁만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을까.

P&G가 항균 효과를 높인 섬유유연제와 섬유탈취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우니가 선보인 '다우니항균파워'는 섬유 속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섬유유연제다. 다우니 최초의 항균 섬유유연제로 99.9% 항균효과를 갖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다우니항균포물라 섬유유연제 코팅해 세균 증식을 방지한다. 항균효과는 세탁 후 48시간 동안 지속된다. 특히 여름철에 자주 빨고 건조 후 바로 사용하는 얇은 옷이나 속옷, 수건을 세탁할 때 효과적이다.

다우니항균파워는 세탁물을 건조할 때 발생하는 끈적한 빨래 냄새도 잡아준다.

페브리즈가 출시한 '페브리즈 항균플러스'는 항균 및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섬유탈취제다. 섬유에 간단히 분사만 하면 항균은 물론 바이러스 제거와 탈취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다.

수면 중 흘리는 미세한 땀에 젖고 마르는 과정을 반복하는 침구류, 외부공기와 이물질에 접촉하기 쉬운 커튼, 패브릭 소파나 매트리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발장에 오래 두어 악취가 나는 신발에 사용하기도 적합하다. 페브리즈 항균플러스는 맑고 시원한 상쾌함을 담은 '깨끗한향', '그린계열의 싱그러움이 떠오르는 '산뜻한향'과 '향료무첨가' 등 총 3종으로 구성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정관장, 뉴욕에 '홍삼 카페' 열었다

홍삼 알리는 뮤지엄 역할도

뉴욕의 심장부 맨하탄에 한국을 대표하는 홍삼 카페가 문을 열었다.

한국인삼공사 홍삼 브랜드 '정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하탄에 'Ginseng Museum Cafe by 정관장(진생뮤지엄 카페)'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생뮤지엄 카페는 이름처럼 한국의 홍삼 제조방식은 물론 고려인삼의 역사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홍삼이 함유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 운영된다.

'진생뮤지엄 카페'는 정관장이 만든 글로벌 최초의 체험형 매장이다. 첫 해외 체험 매장 장소를 뉴욕 맨하탄에 연 배경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아 효과적으로 홍삼을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진생뮤지엄 카페는 맨하탄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5번가 대로와 32번가 한인타운 코너 1층에 위치했다. 정관장은 이 매장이 홍삼은 물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체험형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장 한 칸에 마련된 '홍삼 브루어리(추출존)'에서는 달인액이 24시간 추출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삼추출액을 직접 판매하는 동시에 추출액을 기반으로 만든 진생라떼, 꿀&홍삼 추출액 등의 메뉴도 판매한다. 해피아워 타임을 정해 해당 시간 방문객들에게는 무료 시음이나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간답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와 차(tea) 클래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진생뮤지엄 카페 오픈 행사에 참석한 KGC인삼공사의 김내수 글로벌 CIC 본부장은 "미국 내 작은 한국을 상징하는 뉴욕 맨하탄 32번가에 '진생뮤지엄 카페'라는 또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가 추가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곳에서 많은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이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기억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달까지 잔금 못 내면 '현금청산'?... 빌라 투자자 발동동

공모 앞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3일 전에 등기 마쳐야 입주권 추진 구역 "신속 막아달라" 요구

#.올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A씨는 요새 걱정이 많다. 그는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공사 중인 빌라를 분양받았다. A씨 빌라가 있는 지역에선 실제로 '신속통합기획' (옛 공공기획) 재개발에 도전장을 냈지만 그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A씨가 아직 빌라 잔금을 못 치렀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잔금을 못 내면 재개발이 성사되더라도 A씨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를 앞두고 빌라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공모일 전까지 빌라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사업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신 인허가 절차는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크게 단축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5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자가 선정되면 서울에선 2015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발 신규 사업장이 나온다. 그간 재개발 사업이 팍막혀 있었던 만큼 노후 주거지마다 관심



이 뜨겁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에선 사업 공모일을 권리 산정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권리 산정일은 정비사업장 내 토지주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때 따지는 기준일이다. 권리 산정일 이전에 토지권리를 확보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고 추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권리 산정일 이후엔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를 사더라도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만 받고 땅을 내줘야 한다. 현금청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하는데 통상 시세보다 낮게 매겨진다.

문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신축 빌라다. 연초 그간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를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빌라 매수세에 불을 지폈다.

건축주들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재개발 호재를 내세워 신축 빌라를 지어 분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연립·다세대주택은 1380동으로 지난해 상반기(1062동)보다 29.9% 늘었다.



재개발 추진 지역에선 선분양(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분양하는 것) 빌라도 늘고 있다. 공사 초기 단계나 심지어는 건축 허가를 받은 직후 분양을 받는 일도 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전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렇게 선분양으로 빌라를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공사가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준비하는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이 된다면 연초부터 곳곳에서 빌라를 새로 짓고 있다. 땅 파기만 시작하면 분양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신축 빌라 수분양자와 상담을 했다. 받을 동동 굴리며 최대한 일찍 등기를 쳐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재개발 추진 지역에선 구역 내 건물 신축 등을 막는 행위제한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축 빌라가 난립하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중요한 노후 건물 비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현금청산당하는 토지주 등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할 수 있어서다.

박종화 기자 pbell@

중개업계, 복비인하에 반발 "돈값 못했다" 여론은 '싸늘'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올라오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접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중개업계의 집단행동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작업에 착수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초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중개보수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상한요율이 인하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개편안 의견 개진 안내' 자료를 공지하고 국토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

수로로 모두 재벌 됐다? 지금 중사하는 분들 중 70-80% 이상이 평균 월급이다",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원성을 중개보수 인화로 만회하려 하지 마라", "한 달에 1건 중개도 힘든 영세한 중개사무소 죽이는 중개보수 개편안 결사 반대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중개업계가 중개보수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어쩔지 싸늘하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여전히 복비 부담이 커 더 낮춰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윤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한 누리꾼은 "집 한 번 보여주고 복비를 1000만 원 가까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쟁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당 50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부안 수용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돼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거래금액 (억 원)	매매 현황		매매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 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 원)
0.5미만	~0.6	25	~0.6	25
0.5~1	~0.5	80	~0.5	80
1~2	-	-	-	-
2~6	~0.4	-	~0.4	-
6~9	~0.5	-	-	-
9~12	-	-	~0.5	-
12~15	~0.9	-	~0.6	-
15이상	-	-	~0.7	-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본궤도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 (옛 공공기획)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에서 원안 동의했던 내용이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필수항목**
 - 노후도(연면적)60%이상 - 평가점수 70점 이상
- 평가항목**
 - 주민동의 40점
 - 도로연장률 15점
 - 노후도 30점
 - 세대밀도 15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이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될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시 도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의 폐지로 앞으로 법적 구역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법적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다만 시는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선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신속통합기획(법적 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용역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주체는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한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핵심인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조만간 추진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한양 '동북아 LNG 허브' 순항 3·4호기 저장탱크 공사 승인

한양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의 3·4호기 저장탱크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양은 전남 여수시 묘도에 건설 중인 1, 2호기에 이어 3, 4호기 LNG 저장탱크까지 추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사업 LNG 저장탱

크 총 4기에 대한 정부 승인이 완료돼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한양은 2025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부두시설 등을 조성하는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구축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내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하고, LNG 병커링, 트레이딩, 수소산업, 냉열이용장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

침이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한양의 자가소비용이 아닌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로 향후 가스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은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통해 LNG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발전소와 수소 충전소 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소 공급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월세 2700만원'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세 1위 '래미안 대치팰리스' 36억 김상훈 의원 "정책실패 민낯" 비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7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64.5㎡(이하 전용면적)형은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2700만 원이다. 이는 작년 중소기업 대졸 1년 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월세가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에니그마빌' 230.7㎡형으로 월세만 1200만 원(보증금 3억 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45㎡형이 1000만 원(보증금 10억 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177.8㎡형이 800만 원(보증금 12억 원)에 거래됐다.

전세 최고가 거래는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로 151.3㎡형이 전세보



보증금 36억 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216.5㎡가 32억원, 같은 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130㎡가 32억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전용면적 163.7㎡가 30억원에 거래됐다.

이에 김 의원은 "월세 2700만원, 전세 36억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문재인 정부, 여당이 낳아치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책 실패의 민낯을 낱알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공교육비 정부지원 'OECD 평균' 도 안돼... 민간 부담 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6~10%p ↑ ... 사립대 등록금 공립의 2배
고등교육 이수율·대학 진학률 높지만 성인 고용률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대학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여전히 낮고 민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청년층(만 24~25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1년 만에 OECD 평균 45.5%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재탈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1 OECD 교육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고등교육 정부 투자 여전히 낮아=2018년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정부 재원은 GDP 대비 3.8%로 2017년에 비해

0.2%p 상승했으나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민간재원은 0.1%p 떨어진 1.3%였으나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았다. 이 중 민간 재원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인 대학 단계의 정부지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지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초중고교는 88.6%, 고등교육은 39.7%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달러) ※ 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한국	1억2535	1억4978	1억1290	1억2914
OECD	9550	1억1192	1억7065	1억1680



로 OECD 평균(초중고 89.7%, 고등교육 66.2%)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507만 원=2018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914달러(약 1507만 원)로 2017년보다 933달러(약 108만 원)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에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지출액이 증가세(초등 7% ↑, 중등 10% ↑, 고등 6% ↑)를 보였다.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559만)로 2018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달러(약 1002만)로 변동이 없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나이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 졸업 이후 연령대 25~29세 성인 취학률은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성인 고용률 OECD 평균보다 낮아=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고졸자 임금 기준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8.3%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떨어졌다. 대졸자는 136.3%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대학원 졸업자 임금은 182.3%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각각 줄었다.

2020년 성인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4%로 OECD 평균(75.7%)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자 70.4%, 전문대와 대졸자는 각각 76.1%, 76.3%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높았다.

손현경 기자 son89@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6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휴게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7~22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 및 실내취식을 금지한다. 뉴스시

오세훈 “‘박원순 대못’ 들 시민단체 접점이 보호”

종합성과평가 받은 기관들
특정감사 유예해 통제 난항
수탁기관·보조금단체 선정
시민단체 출신들 자리 꺾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각종 지침과 규정 탓에 서울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못’들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장 시정 조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

이 쳐놓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박힌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종합성과평가 기관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특히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작심 비판했다. 해당 지침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을 꼽았다. 이 때문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획일적인 고용승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대로 규정이 운영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220여 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하고 법 정선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은 하나하나 뽑아나가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 58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18조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18조는 세금포탈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포스코건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며 “A 씨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8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포탈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

구제이 수습기자 sunrise@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기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내사 종결한 경찰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협오와 갈등으로 혼란스런 지금, 본질의 아름다움 찾을 때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 최광진

호암미술관 큐레이터 출신의 미학자로 어언 30년째 미학을 탐미 중인 최광진(60) 교수. 현재는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틈틈이 미학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책을 통해 한국의 미의식을 소개해왔는데, 최근엔 한국의 소박미를 조명하는 신간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국의 미의식인 신명, 해학, 소박, 평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8년부터 미의식 시리즈 도서를 기획했다. 최근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한국의 소박미를 집중 조명한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이 출간됐다.

“시작은 2015년부터였다. 한국의 미학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고, 오죽하면 열 군데 이상의 출판사에 연락을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우연히 미학을 전공한 출판사 대표와 연이 닿아 겨우 책을 냈다. 비인기 장르였지만 의외로 그 책이 잘 팔렸다. 그것을 발판 삼아 시리즈를 기획했다. 우리가 가진 고유한 미의 DNA를 추적한 결과 한국의 미의식을 신명, 해학, 소박, 평온으로 추릴 수 있었다. 이번 책은 건축, 공예, 문인화 등을 통해 본 소박미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소박미는 과연 무엇이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소박미는 기교 없는 자연스러움이다. 배산임수는 산과 강의 자연스러운 조화이며, 우리의 도자기는 자연스러운 비대칭을 그대로 살린다. 문인화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고 자연과 함께 공명하고자 했던 화백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다. 이렇듯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기교가 아닌 본질을 추구했던 선조의 정신이 바로 '소박미'다. 소박미는 협오와 갈등, 그리고 전염병 방결로 인해 어지러운 현시점에 필요한 통합 백신일지도 모른다. 소박미 기저에 깔린 본질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미의식 독립운동

원래 건축학도였지만 중퇴 후 오랜 방황 끝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 입학했다.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체질과 맞지 않았다. 형제들이 모두 음악 계통에 있어서 음악을 하려고 했지만 내키지 않았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인데, 공연이 끝난 후에 물려오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반면 그림은 오랫동안 남는 축적의 예술이라 흥미로워 보였다. 다만 순수미술을 할 정도로 재능이 있지는 않았다. 공대생이 될 정도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성격이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편이었다. 마침 비평과 큐레이팅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생겼다가에 잘 맞을 것 같아 지원해서 들어갔다.”

졸업 후에는 이병철 회장의 호를 따서 만든 호암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삼성은 문화적인 힘이 있는 곳이다. 이병철 회장도 이견희 회장 모두 안목이 뛰어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컸다. 실제로 저녁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새벽까지 예술 공부를 하셨다. 공부 후엔 모두 택시를 태워서 보내셨다고 하더라. 이견희 회장의 집에 우연히 간 적이 있는데 각종 영화와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무척 많았다. 기업 대표로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상상력의 토대가 예술 공부에서 비롯된 것 같다. 예술의 본령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바탕을 쌓는 것. 비단 경영인

한국 고유의 미 DNA 추적

신명·해학·소박·평온으로 추려

기교 없는 자연스러움 '소박미' 다룬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 펴내

호암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다

안락함 탈피하려 이미지연구소 창립

고유한 미의식은 '정체성'과 같아

노후를 위해서도 미학 공부 필요

미학을 바탕으로 한 대안학교

유튜브에 만들고 싶어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신이다.”

큐레이터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안락함에 젖은 노예로 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미지연구소'였다.

“미학 공부로 축적한 콘텐츠를 잘 가공해서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이미지연구소를 창립하고 아카데미를 통해 미학의 관점과 지식을 공유했다. 30명 정도가 꾸준히 찾아오셨는데, 어떤 분은 15년 동안 내 강좌를 들으셨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유튜브로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현장 강의만큼 생생한 소통은 힘들다. 다만 더 다양한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서구 문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고유한 미의식을 되찾는 독립운동이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유튜브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가 독립운동 거점이다. (웃음)”

미학으로 세우는 대안학교

그는 “노후를 위해서도 미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박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퇴 이후 공허함에 시달리는 중년이 많다. 노후 준비를 위해 지갑을 메우려고 했을 뿐, 정신적인 토대를 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미의식이다. 고유한 미의식은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정체성'과도 같다. 아



름다움을 지향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더욱 성장한다. 특히 우리 민족이 지향했던 소박미가 필요하다. 소박미의 정수(精髓)는 본질을 찾는 것이다.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다. 미학 공부는 개인의 미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추다.”

끝으로 미학자로서의 계획을 말했다.

“물질문명에서 정신문명으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왔다. 미의식은 갈등과 대립을 융합하는 통합의 지혜다. 미(美)를 추구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적으로 변한다. 이 험난한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심는 미학이란 종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미학을 바탕으로 한 대안학교를 유튜브에 만드는 것이 꿈이다. 미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잘 꾸기 위한 지혜들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한 10년치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성실히 움직이면서 하나둘씩 해보고 싶다.”

그의 삶은 소박미를 닮았다. 본질을 성찰하듯 자신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했다. 안락한 노예가 아니라 능동적인 영혼이 되기를 원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때론 외로웠다. 소속된 직장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될 만큼 힘든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미학을 연구하고, 그 미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는 알아주는 이는 적지만 고유한 가치를 지닌 미학의 특별함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그의 특별함이 앞으로도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마친다.

글/김민수 기자 minsugold@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주부'가 당신의 마지막 직함이 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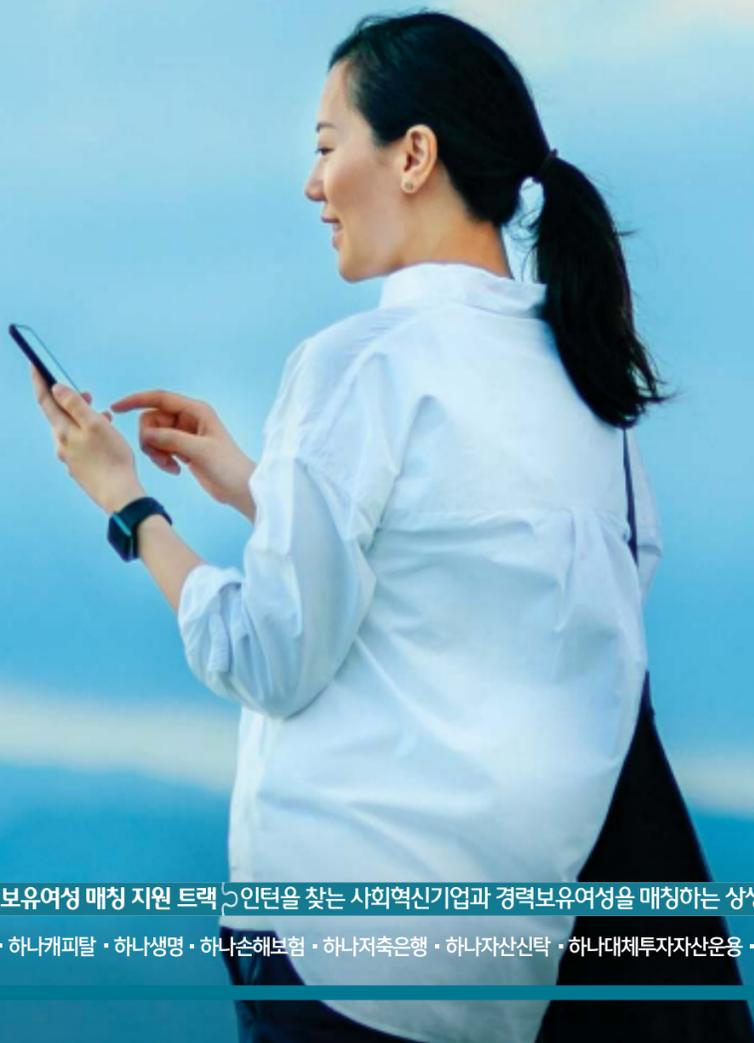
아내에서 다시 매니저로

엄마에서 다시 플래너로

경력이 지어준 이름을 되찾길 바라는

여성들의 다시 쓰는 이력서를 응원합니다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경력보유여성 매칭 지원 트랙 5인턴을 찾는 사회혁신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자영업자 자생력 키우는 금융혁신 일익 담당할 것”

소상공인 신용대출 전문...박성준 편다 대표

2015년 설립 후 3200억 규모 중금리 자금 시장 공급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지위 획득, 자금 유치 수월해져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느 자영업자를 향한 추모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자영업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도소매업, 요식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성준(사진) 편다 대표는 “저신용, 담보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전문 온라인플랫폼을 운영 중인 ‘편다’는 지난달 전세계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금융기관의 지위를 획득했다. ‘편다’가 7000여 요식업자의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절반은 매출하락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나머지 절반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T 비대면 환경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여 배달매출 확대, 온라인 밀키트 판매 등을 통해 새로운 매출상승의 기회를 잡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속에서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영향으로 매출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박 대표는 “자영업자는 신규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상시 발생하는 자금수요로 인해 자금부족 현상은 계속되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무리 건실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매출과 지출의 시기적 불균형으로 인해 신용등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낮은 신용도, 담보부족 등 사유로 기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자영업

자 대출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건실한 자영업자들 마저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유통의 기회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다.
박 대표는 “해외에서는 MCA(Merchant Cash Advance)로 일컬어지는 소규모 사업자 신용대출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MCA는 매출이 발생하고 수시로 자금수요가 생기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미리 앞당겨서 자금을 사용하고 일부 금액씩 나눠 갚는 형태로 기존 금융기관들의 대출 방식에 비해 매우 간편하고 합리적인 금융서비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영미권을 대표하는 자영업자 전문 플랫폼 회사인 온택 캐피탈과 캐비지는 각각 한

화 15조 원, 7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다. 온택 캐피탈은 사업개시 7년 만인 2014년에 뉴욕증시에 상장했으며, 캐비지의 경우 지난해 세계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아멕스에 1조 원 규모로 인수됐다. 아시아에서는 기업가치 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싱가포르 소재 편다 소사이어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영업자 신용대출 전문 온라인플랫폼 회사인 편다가 2015년 회사설립 이래 지난 6년간 3200억 원 규모의 중금리 자금을 자영업자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제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의 편다 자영업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유치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적기에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워드코로나 시대를 이야기 한다”며 “워드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자영업자들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혁신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국제산업위생학회 평생공로상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15일 열린 제 12차 국제산업위생학회(IOHA 2021)에서 박두용 공단 이사장이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산업위생학회 평생공로상은 전 세계 산업위생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1997년부터 2년마다 1명을 선정해 수여한 이 상은 지금까지 9명이 받았고, 박두용 이사장이 10번째 수상자가 됐다.
박두용 이사장은 아시아 산업보건 네트워크를 설립해 전문가 양성 및 정책 수립을 주도해온 점과 10여 년 이상 산업보건이 취약한 아시아 국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
오윤진 회계사, 위원에 선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의 위원으로 오윤진 회계사가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국제회계사기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구자열 회장,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환담



구자열(오른쪽)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에드윈 풀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전 이사진을 만났다. 구 회장은 에드윈 풀너 창립자와 한미관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최근의 통상현안을 주제로 환담을 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윤여정,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100인’에

‘미나리’ 함께 출연한 스티븐 연도...바이든·팀 쿡 등과 나란히

배우 윤여정(왼쪽 사진)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윤여정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TIM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2021)으로 뽑혔다. 타임은 2004년부터 18년 동안 매년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이 명단에는 윤여정과 함께 스티븐 연(오른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해

리왕자와 부인 메건,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도 선정됐다.
윤여정은 지난 4월 영화 ‘미나리’ 순자역으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아시아 배우로는 ‘사요나라’ (1957)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의 수상이다.
스티븐 연은 타임에 실린 추천사에서 “윤여정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우러난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윤여정은 선정 소식에 대해 “내가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은 한해였다. 100인에 내가 뽑혔다는 데 나도 놀라고 있다”며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를 바라며,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과 같이 이름을 올리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두바이 출장 30년간 매해 명절 현장직원과 함께

김석준(사진) 쌍용건설 회장이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두바이 출장에 나섰다.
쌍용건설은 김 회장이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과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 현지 점검을 위해 17일 출국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0년간 매해 명절을 해외 현장 직원들과 함께 지내왔다. 김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두바이 출장을 결정했다. 이번 두바이 출장은 코로나19 확산기인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4월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출장은 연말 준공을 앞둔 초대형 프로젝트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 현장과 다음달 1일 두바이 월드 엑스포 개막에 맞춰 쌍용건설이 시공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회장이 방문할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은 총 공사비만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상 46층, 795객실 규모로 완공 이후 두바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BTS ‘다이너마이트’, 롤링스톤 ‘위대한 노래 500곡’에
한국 가수 최초 346위 랭크 ...“멤버들의 보컬 재능 돋보여”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유명 음악 잡지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 목록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롤링스톤이 발표한 ‘베스트송 500’에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346위로 꼽혔다.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미국 넘버 원 곡으로, 세계를 정복한 한국 그룹이 획기적으로 패권을 흔들게 만들었다”면서 “젊고 뛰어난 멤버들의 보컬 재능이 돋보인다”고 평했

다.
롤링스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은 대중음악계에서 명망 있는 리스트로, 한국 가수의 노래가 이 리스트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롤링스톤은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목록을 재정비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는 이들의 첫 영어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통산 3주 1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개한 500대 명곡의 1위는 아



레사 프랭클린의 ‘Respect’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1980년대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 소울 장르의 시조로 불리는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등이 순위에 올랐다.
안유리 기자 inglass@



현대차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젊은 공연예술인들의 축제인 ‘제9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이 6개월에 걸친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현대차그룹은 15일 서울 용산에 자리한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배우 송승환,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김용재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 백석예술대학교의 연극 ‘해무’와 서경대학교의 뮤지컬이 연극과 뮤지컬 부문 영예의 대상으로 각각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팀당 6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수상팀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인사

- ◆관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감사관 이석문 △심사국장 이종욱
- ◆방위사업청 <교장급 전보> △선행연구과장 김기훈 △기반전략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 한영일
- ◆연합뉴스TV △전무이사 고승일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추승호
- ◆경인방송 △경영지원국장 김창용 △정책기획실장 정재웅
- ◆폴리뉴스 △편집국장 석남식 △산업국장 최환금 △전략기획실장 한유성

부음

- ▲강삼석(전남대 의대 명예교수) 씨 별세, 최춘(최춘산부인과 원장) 씨 남편상, 강석준(보리안과병원 원장) 씨 부친상, 박형운(고운우리피부과 원장) 씨 장인상 = 15일, 화순전남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17일 오전 10시, 061-379-7444
- ▲정원희 씨 별세, 정철호(OBS 정치부 기자) 씨 부친상 = 15일, 서울 강남세브란스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02-2019-4001
- ▲송국선 씨 별세, 김석원(IBK투자증권 총무부장) 씨 모친상 = 15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8일 오전, 031-910-7444
- ▲박영희 씨 별세, 김성진(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씨 모친상, 박철호(뮤지컬배우) 씨 장모상 = 16일, 신대인장례식장 1층 무궁화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063-571-6300

윤기영의 미래토크



한국의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디지털 전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기능적 품질뿐만 아니라, 비기능적 품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디지털 유창성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창성 없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막연한 이해와 낙관을 가지고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면 예산 낭비와 시간 허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신뢰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 활용도는 작지 않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다. 암호화폐, 선하증권, 인증,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자산 관리 등이 떠오르는 정도다. 그것도 인증이나 디지털 자산 관리화는 논쟁적 요소가 없지 않다.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의 쓰임새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모든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저장된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신뢰를 담보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블록이 거래기록,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덩어리이고, 이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 중간 블록의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정리하자면 기능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블록체인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은 이유는 블록체인의 비기능적 품질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비기능적 품질'이란 말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품질 중 하나로

디지털 정책, 전략 및 전문가에게는 귀에 익은 용어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비기능적 품질로는 비용효율성, 수행성, 규모성, 유연성, 상호운영성, 보안성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발자국과 같은 것도 비기능적 품질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보안성이 나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더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른 비기능적 품질은 매우 낮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한 개의 거래를 기록하는 데 맡게는 62.8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최근 2.5달러로 하락했다. 10원이 안 되는 1사토시를 거래하는 데도 2.5달러가 들며,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투표 한 개의 기록을 저장하는 데도 2.5달러가 든다.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 높아서, 거래 하나를 기록하는 데 5.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할 블록이 채굴되어야 하는데, 이 채굴 주기가 비트코인은 10분, 이더리움은 15초다. 규모성도 좋지 않다. 비트코인은 1초에 7건, 이더리움은 1초에 15건 정도다. 증권이나 일반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더욱 안

블록체인 유감

좋다. 블록체인 채굴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전기소비량이 어마무시하다. 2020년 한 해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된 전기량은 121Twh에 달해 아르헨티나의 한 해 전기 소비량보다 컸다.

비기능적 품질이 문제가 되는 블록체인은 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것이다. 일정한 사용자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성, 수행성, 규모성 등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좋다.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당하며, IBM의 하이퍼레저(Hyperledger)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는다. 기능적 품질로 보아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 시스템의 성공과 디지털 전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기능적 품질뿐만 아니라, 비기능적 품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디지털 유창성(Digital Fluency)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창성 없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막연한 이해와 낙관을 가지고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면 예산 낭비와 시간 허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유창성에 등을 기대고 볼 때, 블록체인 유감이다. 그런데 이 유감이 블록체인에만 그칠까?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디지털 기술에는 유감이 없을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거나 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몽환적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사결정 조직구조에 충분한 전문성이 없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참모진에 디지털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닐까?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의 급격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신발 끈을 고쳐 매어야 한다. 각 조직에 디지털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 전환적 여정을 준비하는 정부, 공공, 기업 및 개인에게 바라고 당부하고 기대한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정대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필자는 종종 택시를 이용한다. 하지만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어 흔들지 않는다. 대신 스마트폰을 들어 앱(app, application)을 연다.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편리함이다. 목적지를 설명할 필요도 결제를 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감정도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최단거리 운행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바로 앞에 빈 택시가 서 있어도 앱을 사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곤 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호출 앱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마운' 앱에 대하여 필자를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일이 발생했다.

불안감의 시작은 앱의 이름을 달고 달리는 택시의 출현이었다.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의 택시가 반가울 수는 있겠으나, 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카카오를 응원한다

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택시 운행까지 한다는 사실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한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호출 수수료를 쉽게 올릴 수 있다. 이때 택시 기사(공급자)와 고객(수요자)들이 수수료 상승에 반발하여 앱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수수료 인하의 압박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택시 운행까지 하게 되면, 공급자의 압박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상당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택시 호출 수수료의 상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수요자는 좀 더 빠른 호출을 위해, 공급자는 좀 더 빠른 배차를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유도되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모든 수요자와 모든 공급자가 동시에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플랫폼 기업의 이윤은 상승하지만, 어느 누구도 '상대적으로 빠른' 호출이나 배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곤 한다. 이렇게 플랫폼 시장이 독점화 되고 공급자와 수요자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정 기업은 행복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울상을 지었고,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이내 플랫폼 기업이 "배기를 들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행복 이후 기업의 조치가 상당히 흥미롭다. 기업은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는 택시기사 대상의 '프롬배시' 요금을 월 9만 원대에서 3만 원 대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마치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윤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낮은 수수료에 더 많은 기사가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우선

배차'를 받을 확률은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플랫폼 기업만 가입자 증가를 통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두 함께 행복해질 방법은 없는 것일까?

플랫폼 기업은 배기를 들며 "이동 경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되새기겠다"고 했다. 이것이 진정 해당 기업의 목표라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기업을 둘로 쪼개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힘들게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면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고, 공급자와 수요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사회와 "더 나은 삶"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그리 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다면 국회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콩도르세 명인 "남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의 생활을 즐겨라." '적분학 시론', '해석론'을 집필한 프랑스 수학자인 그는 대혁명 시대에는 공화당의 정치가로 활약했다. 그가 공교육 위원장 때 낸 '공교육 일반 조직에 관한 보고 및 법안'은 교육사에 주목할 만한 문헌으로 평가받는다. 자코뱅(Jacobins) 정부에 반대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은신하던 그는 체포되자 자살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743-1794.

☆ 고사성어 / 주공삼태(周公三豎) '주공의 세 차례의 매질'이라는 말. 지식교육의 지엄함을 비유한다. 주공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넷째 아들. 무왕(武王)의 동생인 그는 조카 성왕(成王)을 잘 보좌해 나라의 기틀을 잡는 정치를 펴 공자(孔子)가 성인으로 꼽은 인물이다. 그는 아들 백공(伯禽)을 세 차례 만날 때마다 심한 매질을 했다. 이를 본 주공의 동생 강숙봉(康叔封)이 백공과 현자인 상자(商子)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다. 상자는 위로 곧게 뻗은 교(橋)란 나무를 통해 '아버지의 도리'를, 아래로 자란 재(梓)라는 나무를 통해 '자식의 도리'를 그에게 깨우쳐 주었다. 출전 설원(說苑) 건본편(建本篇).

☆ 시사상식 / 하메족 하우스메이트(housemate)족의 줄임말. 낯선 사람과 월세를 나눠 내고 함께 사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며, 집을 소유한다기보다 거주한다고 보는 젊은 층이 확산하며 유행하고 있다.

☆ 신조어 / 당모치 '당근마켓으로 모두 치운다'의 줄임말.

☆ 유머 / 엄마의 결혼 딸이 "엄마는 연애 결혼했어 아닌 중매 결혼했어?"라고 물었다. 재차 묻자 그제야 엄마가 한숨 쉬며 한 말. "사기 결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변효선 국제경제부/hsbyun@

맹모의 나라에서 사교육 때려잡기

아갔다. 바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 정책'과 2008년 제정된 '서울시 심야 교습 금지 조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두환 시절의 과외 금지 정책은 불법 과외를 양산하며 되레 암시장을 키워냈다. 서울에서는 이미 10년 넘도록 밤 10시 이후 학원의 심야 교습이 금지되고 있지

만, 사교육 부담이 줄었다거나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줄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내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대치동에서는 학원 대신 '스터디 카페'라는 명칭의 편법과외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교육 때려잡기'를 두고 도 벌써부터 교육열이 잠재워지는 것이 아

나라, 편법이 양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좋은 대학'이 '성공의 길'과 직결된 학벌 중시 사회에서는 법안이나 규제 몇 개 집어 든다 해서 학구열이 쉽사리 때려잡혀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학벌 위주의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맹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 놓기 위한 교육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때려잡아야 할 것은 사교육이 아니라 사회 내에 팽배한 '학벌 숭배 사상'이다. 시 주석이 바라는 올바른 청소년상인 '영어·수학뿐만 아니라, 도덕·지식·스포츠·예술·노동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회주의 건설자·후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공동주택 관리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신뢰가 최우선”

“층간소음부터 애완견, 흡연 문제까지 모든 민원은 아파트 관리소로 쏟아지지만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결국 입주민 간의 소통만이 해결책이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은 주택관리사입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아파트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익숙한 곳이지만 정작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주택관리사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2016년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조건(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갖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반드시 주택관리사가 맡게 돼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총 1만8000명의 주택관리사가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투데이는 서울 금천구 협회 사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나 주택관리사의 현황과 당면 과제, 향후 협회 활동계획 등을 들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갑’ 아닌 ‘을’

이 회장은 1월부터 제9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 회장 취임 이후 첫 결실도 얻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사건 이후 관리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라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은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 씨에게 살해됐다. 이 씨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본인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이 소장이 이를 수차례 제지했고 이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소장을 살해했다.

이 회장은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업무 환경이 극도로 위협받는 초유의 사건이었다”며 “재발 방지가 급선무인 만큼 가해자 엄벌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위해 협회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했다.

지난달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도 ‘갑(甲)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협한 지시 및 명령, 부당한 간섭,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임기 내 추가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와 학계는 법적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 관련 갑질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운수업이나 의료, 철도 종사자를 관련 법률로 보호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이외에 별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안정한 현행 주택관리사 고용 체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장은 전체의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14일 서울 금천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층간소음·흡연·애완견 갈등 모든 민원 법 통한 해결 어려워
주택관리사가 소통 가교 역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입주민 ‘갑질’로부터 보호장치
임기보장 등 추가 제도개선 필요

‘150가구 미만’ 등 법 사각지대
입주자회의 ‘사용자’ 지위 돼야
자의적 권한 행사 막을 수 있어

80% 이상이 위탁관리회사에 의해 파견 등 간접 고용된 관리 종사자”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회사가 다시 계약직 관리소장을 고용하는 구조이므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나 갑질을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계약이 원인

이 회장은 이어 “한 달이나 석 달, 반년 등 1년 미만 단기 계약직과 같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 계약이 이어지지만 갑질 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관리 종사자들은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일하고 결국 근로 의욕까지 떨어져 관리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표준 수탁 관리 계약서에 2년에서 3년의 위탁 관리 계약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분 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는 곧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국민 인식 변화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리사무소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시민 인식을 바꾸는 활동도 필요하다”며 “협회

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 현장의 갑질 방지,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했다.

관리사무소에 위법행위 강요 막아야

2019년 기준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 1813만 가구 중 1400만 가구(77%)를 차지할 한국의 대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택관리사는 전국 1만7400개 아파트 단지에 파견돼 모든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노인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이 많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밖에 있는 주택들, 특히 수백 실 규모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오가는 곳”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복지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의무관리 대상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에 각종 위법행위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관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제 등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내 모든 민원은 관리사무소로 모이는데 사실 문제 해결은 관리소의 강제력보다는 입주민 간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 할 상황이 더 많다”며 “결국 소통을 활성화하려면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관리소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관리 주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관리사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사설

추석연휴 코로나 최대 고비, 국민 자발적 방역 절실

주말부터 닷새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이 기간 중 대규모의 인구가동이 일어나고,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고비다.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휴를 지난 후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큰 까닭이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인구이동은 모두 3226만 명(9월 17~22일)에 이를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예측했다. 작년 추석때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귀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신규 확진자는 16일(0시 기준) 1943명 늘어 누적 27만9930명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지난 7월 7일 이후 72일째 네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의 영향을 받는 주초에는 1000명 대로 줄다가 주중에 다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이 80%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16일에도 서울·경기·인천의 확진자가 1506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1921명의 78.4%에 달했다. 전날에도 80.5%였다. 연휴 기간 수도권 인구의 이동이 늘어 지방 감염 확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백신은 15일까지 3497만70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전체 인구의 68.1%이다. 곧 70%를 달성하면서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급하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2116만8093명으로 인구의 41.2%에 그쳐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더구나 전파력이 매우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추세 중이 됐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효과가 무력화돼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계속 살얼음판의 불안한 국면이다.

코로나 확산의 고삐가 잡히지 않은 채 수도권 인구의 이동으로 지방에 번질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13일부터 26일까지는 요양시설 환자와 면회객이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접촉면회가 허용되고, 17~23일 동안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의 치밀한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지금까지 잡고 견뎠던 것처럼, 불편과 고통을 감수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자제가 절실하다. 자칫 이번 연휴 기간을 지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게 되면 그야말로 견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내 코로나 통제는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도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영화로 보는 세상

니들이 군대를 알아? 드라마 ‘디피(D.P.)’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가 그동안 헛발질만 하더니 이번에는 대박을 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 이렇게 군대 조직을 살살이 해부한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던가? 군 부대 앞에서 사진만 찍어도 간첩으로 오인받았던 나라에서 말이다. 국방부에서 항의 성명이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의 군대는 드라마와 많이 다르다는 국방부 장관의 호소(?) 정도로 마무리됐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꽤 열린 사회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시리즈 시즌1인 ‘D.P.’는 한국의 군대 조직이 가혹행위와 집단 괴롭힘으로 얼마나 점철되어 있는지 날 것으로 보여준다. 이 드라마를 본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군복무 취업가산점을 줘도 괜찮겠다는 동정 섞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고, 한 여성 영화 평론가는 시청 후 눈물을 펄펄 흘렸다고 전한다. 자국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병영 문화에 외국의 넷플릭스 회원들은 조화수 피크를 찍기도 했다.

‘D.P.’는 김보통의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하고있다. DP는 ‘Deserter Pursuit’의 약자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군무이탈체포전담조’이다. 아무나 DP가 될 수 없다. 기본 체력과 센스, 컴퓨터 등의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고 머리로 기를 수 있어 다른 군인들의 선망이 되기도 한다.

예비역 일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호흡에 빠지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DSD)에 빠진다고 한다. ‘복명복창’에 난더리가 쳐진다는 사람도 많다. 서글픈 건 여전히 군대 안의 모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 TV 뉴스를 틀었더니 병사 한 명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자살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드라마의 한 촬영병이 절규한다. “군대가 바뀐다고? 부대에 있는 수통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알아? 1953년이야. 군대는 절대 바뀌지 않아!”

병역 면제된 아버지로서 현역 복무를 마친 두 아들에게 괜히 미안하여 새삼스레 문자를 보냈다. “밥 굶어 가면서 군대 생활 힘들고 고생스러웠더라. 그래도 이제 월급 100만 원 정도 준다니 후배들에게 그나마 다행이다.”

벌써 시즌2가 기다려진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SAMSUNG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실수해도 겁낼 필요 없는 **BESPOKE 인덕션** 공간에 꼭 맞춰주는 **BESPOKE 냉장고 & 식기세척기**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BESPOKE 그랑데SM** 우리의 시간을 특별하게 **The Premiere**
 나도 모르게 겁이 나오 꼭 붙들어줘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믿을 수 있는 **BESPOKE 큐브SM Air** 반할 수밖에 없는 **BESPOKE 에어드레서** 너무 멋져 보이는 **BESPOKE 무풍에어컨**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처럼 작품같은 TV **The Frame** 반할 만큼 깨끗하게 **BESPOKE 제트**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한 **더플레이트 인덕션**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처음 사랑한 집 우리가 처음 사랑한 가전

삼성 신혼가전



비스포크 웨딩 클럽
 가구·예물부터 신혼가전까지
 놀라운 혜택을 한번에!
 삼성닷컴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가입기간: 21.08.01~21.10.31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참고



가전을 나답게.